성실 • 경건 • 신념

"대진중원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中源大學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13호 2017년 3월 2일(목)/계간

발행인 · 안병환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팀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지면안내

입학 축사
02 안병환 총장
03 박덕흠 국회의원
03 김창현 괴산군수 권한대행

Campus News
04 2017년 전기 학위수여식
04 3초 관심기부 프로젝트 참여 눈길!
04 세계군인체육연맹 공동 석사 학위 프로그램 운영
04 김도완 RIS사업단장, 산자부장관상 수상

Students News
05 경찰공무원 3명 최종합격!
05 '세계펜칵실랏챔피언쉽' 동메달 획득
05 임상병리학과 국가시험 100% 합격
05 연극영화학과, 졸업생들 위한 '가족 참여 이색 학위 수여식' 가져
05 사회복지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전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KCI) 논문 등재

JWU in 人
06 위대한 한국인, 자랑스러운 중원인 – 박금숙 교수
06 꿈을 이룬 중원人, 경찰 뱃지를 달다
07 '가온' 따뜻한 한 끼로 나누는 따뜻한 마음

JWU in life
08 중원 리포트 도플갱어
09 가방 속 이야기
10 · 11 중원의 달인
12 조금만 노력하면 별거 아닌 과제
13 빅데이터로 알아보는 중원대 카페테리아

Freshman
14 마음의 소리–너 내 룸메가 되라!
15 완벽한 대학생활을 위한 꿀팁
16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17 접속! 동아리 월드!
18 모두의 장학금 ♪ 모두 해~
19 JR 선배님에게 물어봐!
19 새내기를 위한 필수템

Career
20 취업 자소서 아직도 그렇게 쓰니?
20 취업을 만만하게 보지마세요

Global JWU
21 나는 중원대생이다 –유학생 1 편–

Culture
22 중원 독슐랭 가이드
23 봄바람 따라 통학버스 나들이
24 신입생을 위한 괴산읍내지도

제13호 2017년 3월 2일 목요일

JUNGWON UNIVERSITY
START SCHOOL





총장 안 병 환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총장 안병환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중원대학교 가족을 맞이하는 매우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저도 신입생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 가슴이 설렙니다. 먼저, 오늘 중원대학교 입학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방문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중원대학교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입학식까지 20여 년 간 훌륭하게 키워주신 부모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우리 신입생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원대학교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많은 투자와 지원을 해주신 학교법인 대진교육재단 이사장님과 종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오늘 영광스러운 입학식을 맞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입생 여러분!

우리 중원대학교는 2009년 '해원상생'의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조적 인재 육성을 목표로 개교하였습니다. 올해 개교 8주년이 되는 중원대학교는 기초학문은 물론 항공·우주산업·의료보건 등 미래사회를 주도할 전공분야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문사학이 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또한, 올바른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가 원하는 창조적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재단과 학교, 교수와 직원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는 지난 8년간 다양한 분야와 지표에서 그 결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작년 중원대학교는 중국의 명문대학인 북경연합대학에 중원대학교 캠퍼스를 설립하였습니다. JUCC(Jungwon University China Campus)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국제화 역량은 물론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고, 이는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비행교육원을 개소하였습니다. 이는 미래교육의 경쟁력 확보와 중원대학교가 나아갈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기존의 틀을 닦고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 내실 있는 운영은 우리 중원대학교가 더 발전하고, 명문사학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입생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부터 4년간의 대학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는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학은 진리탐구의 전당입니다. 각자가 선택한 전공분야에서 다양한 지식과 삶의 지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신입생 여러분 모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내며 과감한 투자와 정책 결정을 통해 신입생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에,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를 막 시작하는 신입생 여러분께 총장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몇 가지 당부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혜의 곳간을 충분히 채우길 바랍니다. 대학은 지식만을 배우기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스승과 제자, 친구와 선 · 후배와의 관계를 통해 충분히 성숙하고 사회적 약자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곳 입니다. 객관적인 앎을 통해 형성된 지식은 충분한 사색과 반성을 통해 지혜로 성장합니다. 아무쪼록 중원대학교에서 지식과 지혜를 두루 겸비한 진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막 인생의 2번째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앞으로 신입생 여러분 앞에는 상상할 수 없는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 가능성의 문을 누가 먼저 노크하느냐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걱정하고 피하기보단 여러분 앞에 놓인 가능성의 문을 자신 있게 열고 들어가십시오.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 실행한다면, 그 실패를 교훈삼아 한 단계 더 발전한 여러분의 모습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은 다 똑같지만 그 결과는 모두 다르다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비결은 좋은 머리가 아니라 올바른 인성이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내가 배운 지식을 우리 사회에 환원하고 낮은 곳에 있는 사람까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배움의 자세야말로 우리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중원인입니다. 즐겁고 후회 없는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중원대학교 모든 교·직원은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입학식에 참석해주신 학부모님과 내·외빈 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3. 2

중원대학교 총 장 안병환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을 실현시켜나가는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 인재의 요람입니다.



국회의원 **박 덕 흠**

제 20대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충북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존경하는 중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박덕흠입니다. 먼저 중원가족이 되어 주신 신입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중원대학교 2017학년도 입학식이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운의 푸른 꿈을 가슴에 가득 안고 중원대학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생 여러분과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성을 다해 뒷바라지를 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드리며 입학식을 알차게 마련해주신 안병환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입학식을 축하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입생 여러분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의 명품대학으로 성장해나가고 있는 중원대학교는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라는 슬로건을 아래 대한민국의 중심 중원에서 학생들의 무한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는 후원자이자 여러분들의 꿈과 열정을 실현시켜나가는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 인재의 요람입니다.

차별화된 교육환경과 특별한 교육연구시스템을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에 노력해 오신 안병환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의 지도아래 앞으로 신입생 여러분께서도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품성을 갈고 닦으면서 꿈과 희망을 키워 지역과 국가를 빛내는 훌륭한 인재가 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활에서 마주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괴산군수 권한대행
김 창 현

친애하는 중원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긴 겨울이 지나가고, 온 누리에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하는 봄의 문턱에서, 희망을 안고 새로운 출발을 하는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희생과 사랑으로 자녀를 길러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중원대학교는 2009년도 개교한 이래 차별화된 글로벌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최고의 교육환경으로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의 요람이 된 중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으시기 바라며 괴산군에서도 여러분이 더 높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입생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게 될 괴산은 산자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유적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고장입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산막이옛길, 충청도양반길, 화양구곡 등 곳곳에 유서 깊은 문화유적들이 산, 들, 강과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학생활에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함께 힐링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사람들은 일생 중 학창시절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속에도 대학생이 되었다는 벅찬 감격과 설렘, 그리고 자부심이 자리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오늘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감이 확신과 자신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명확한 비전으로 대학생활을 설계하고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는 새롭게 도전하는 자의 몫입니다. 대학생활에서 마주칠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서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나눔

JWU 한마음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정성이 중원대학교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문의처 : 전화 (043)830-8076
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관리팀 / 팩스 (043)830-8079

기부참여 방법

1. 현금 즉납
2. 무통장 입금 | 아래의 발전기금 계좌로 직접 입금해주세요.
농협 301-0018-0977-31(중원대학교 발전기금), 국민 615801-04-207855(중원대학교 장학기금),
국민 615801-04-211393(중원대학교 발전기금)
3. 자동이체 신청 | 매달 약정하신 금액이 자동으로 납부됩니다. 신청전화 043-830-8056 (*문의처로 연락하여 반드시 입금 확인)

2017년 전기 학위수여식!



▲2017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안병환 총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우리대학이 2월 17일 대강당에서 2017년 전기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 436명(학사 424명, 석사 10명, 박사 2명)과 박덕흠 국회의원, 김창현 괴산 부군수 등을 비롯하여 재단 임직원, 교직원, 졸업생 가족 등이 참석했다.

수석졸업의 영예인 이사장상은 양재영(레저스포츠학과) 학생이 수상하였고, 정은아(사회복지학과), 김창범(컴퓨터시스템공학과), 박연우(임상병리학과), 권혁규(항공재료공학과), 안송미(산업디자인학과), 김애림(스포츠건강의학과) 학생이 총장상을 수상했다.

중원대 안병환 총장은 "그동안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거름삼아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가 되어 주길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더 훌륭한 중원대학교를 만들어 여러분들의 왕성한 사회활동에 힘이 되어 드릴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2009년 개교한 중원대는 2013년 첫 졸업생 108명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980명이 졸업했다.

〈편집부〉

3초 관심기부 프로젝트 참여 눈길!



▲안병환 총장이 3초 관심기부를 위해 방문한 김선미 관장(라폼므 현대미술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이 11월 30일부터 약 한 달간 "3초 관심기부 프로젝트- 관심의 변화(시간기부 관심기부 공공캠페인)"에 동참한다.

이번 3초 관심 기부 프로젝트는 청주 라폼므 현대미술관에서 주관하는 새로운 기부 프로젝트로 미술작품을 매일 3초씩 한 달간 감상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불우이웃을 생각하고 관심을 두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3초 관심 기부 프로젝트는 지역 지도층에 무료로 예술작품을 전달해 하루에 3초씩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한 달 후 다른 지인에게 작품을 릴레이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기부는 서원대 손석민 총장이 안병환 총장을 차기 주자로 추천해 동참하게 되었으며 앞으로 한 달간 관심기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안병환 총장은 "관심 기부 릴레이를 통해 우리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불우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대학이 사회적 기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부에 참여하여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에 릴레이 되는 예술작품은 티안 작가의 '머물렀던 곳(2015)'으로 올해 1월 뉴욕 'GALLERY MC'에서 열린 '31 Esquisses for Holigram Works' 전시에서 각광을 받은 작품이다.

〈편집부〉

세계군인체육연맹 공동 석사 학위 프로그램 운영 (CISM)



▲23일 중원대는 세계군인체육연맹과 공동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리대학이 세계군인체육연맹(CISM : International Military Sports Council, 이하 CISM)과 공동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중원대학교가 오만에서 열린 "제2회 CISM 오만 국제 축구 선수권 대회"에 방문하여 2만 달러 상당의 축구용품을 기부했다. CISM 축구대회는 16개국이 참가하여 2017년 1월 15일 ~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기부는 2015년 경북문경 세계군인올림픽 조직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진행 되었으며 중원대학교와 CISM 공동 로고가 부착된 축구용품 아프리카 지역 축구 꿈나무들에게 지원된다.

또한 중원대는 CISM 오만 국제 축구 선수권 대회를 지원하면서 지난 10월 체결한 MOU 협약의 일환으로 중원대-CISM 공동 석사 학위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공동 석사 학위 프로그램은 중원대가 주관으로 운영하며 CISM이 지원하고, 중원대와 CISM으로 학위에 공동 표기하기로 하였다.

교수진은 중원대와 CISM측이 50:50으로 구성하며, 프로그램은 군인스포츠, 문화, 실용분야가 접목된 융합학문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중원대 안병환 총장은 "이번 공동 석사 학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중원대와 CISM의 관계를 돈독히 다지며, 세계군인스포츠연맹 산하 136개 회원국에 중원대학교의 수준 높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점에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원대는 2015 경북문경 세계군인올림픽 조직위원회와 업무협약에 이어 하킴 알 시노 국제군인스포츠위원회 회장에게 첫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바 있다.

〈편집부〉

김도완 RIS사업단장, 산자부장관상 수상



▲산자부장관상을 수상한 김도완 교수가 RIS사업단 유기농산 제품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괴산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단(중원대 RIS사업단) 김도완 단장(식품공학과 교수)이 지역산업유공자 관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김도완 교수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괴산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단의 단장으로 친환경 농업군인 괴산의 친환경 농산물을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가공식품으로 개발하여 지역의 식품업체가 유기가공식품을 개발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주력 산업이 유기농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여 했다.

특히 충북 및 괴산 지역 유기가공식품 인증 품목수를 3개 품목에서 64개 품목으로 확대시켰으며 '2015 괴산세계유기농산업엑스포' 행사장에 유기가공식품 대부분을 지원했다.

이어 해마다 4월 서울 COEX에서 열리는 국제유기농산업박람회에 유기인증 받은 제품만을 별도 전시하는 공간을 마련해 충북도의 유기가공식품산업 활성화와 수출에 기여했다.

또한 세계 최대 규모의 유기농산업박람회(독일 BIO-FACH)에 국내 최초로 기업관을 개설해 대한민국의 유기가공식품을 세계에 알렸다.

중원대 RIS사업단은 2012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괴산 유기농산업 공동브랜드 '오래늘'의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김도완 단장은 "충북의 6대 신성장 산업에 포함된 유기농산업이 확대 발전시켜 바이오산업과 화장품뷰티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구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유기농 산업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경찰행정학과, 경찰공무원 3명 최종합격!

우리대학 경찰행정학과(학과장 김택) 재학생 김보라(10학번, 경기남부합격), 이지은(11학번, 서울본청 합격), 조석균(11학번, 충북지방청 합격)학우 3명이 2016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최종합격했다.

중원대는 경찰 채용시험 합격을 위한 맞춤식 교육프로그램과 경찰공무원을 위한 고시원을 운영하여 무료 인터넷 강의와 모의고사 실시 결과에 따른 1:1 맞춤 지도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님들의 밀착형 교육(CMP멘토링 제도)으로 경찰체력연습, 경찰무도 등 실무와 실습 중심 교육을 지도하고 있다.

김택 학과장은 "경찰공무원 직무에 맞는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며 "필기시험은 물론 체력검사, 인적성 검사 등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하지 않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우수한 경찰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합격자들은 오는 10일 중앙경찰학교에서 8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 일선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합격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교수님께 인사드리러 온 이지은(왼쪽), 김보라(오른쪽) 학우.

임상병리학과 국가시험 100% 합격

-실습중심교육 · 멘토링교수제 등 결실-



▲임상병리학과 학생들이 무료 건강검진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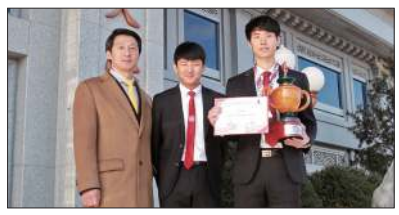
우리대학 임상병리학과 재학생 11명 전원이 2016년도 제 44회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지난 달 24일 시행된 임상병리사 국가시험은 전국에서 2788명이 응시, 2070명이 합격해 74.2%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이 시험에서 우리대학 임상병리학과는 11명이 응시해 100% 합격했다. 임상병리사는 임상병리학과에서 병원미생물학, 임상화학, 혈액학, 조직병리학, 임상생리학, 병원임상실습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임상병리사 국가고시에 합격해야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미란 중원대 임상병리학과장은 "비교적 짧은 역사이지만 최신 실습 장비를 바탕으로 한 실습중심교육과 그룹 스터디 운영 및 실전모의고사를 시행하며, 생애멘토링교수제(CMP멘토·멘티)를 통한 교수들의 세심한 지도 등으로 100% 합격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한편, 임상병리사 면허 취득 후에는 대학병원, 종합병원, 전문검사센터와 같은 다양한 임상검사 의료기관과 국립보건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혈액원, 보건소 등과 같은 국·공립 기관의 검사 전문가로 종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 언더라이터, 제약회사,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다. 〈편집부〉

'세계펜칵실랏챔피언쉽' 동메달 획득



▲동메달을 딴 이창교(오른쪽) 학우가 같이 출전한 조순기(가운데)학우, 박영만(왼쪽 맨끝) 지도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이창교(경호학과 1학년) 선수가 지난 12월 2일~9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17회 '세계펜칵실랏챔피언쉽'에서 탄딩(겨루기)부문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다.

세계펜칵실랏챔피언쉽은 4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진행됐다. 이창교 선수는 8강에서 러시아 선수의 반칙으로 쇄골 부상을 입어 준결승전에서 인도네시아 선수와 경기 도중 1라운드 1분 45초에 아쉽게 경기를 포기해야만 했다.

이창교 선수는 "경기 도중 러시아 선수의 반칙으로 인해 경기를 중단하고 싶었으나, 경기를 지켜보시는 분들을 위해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으로 부상 투혼을 발휘했다"고 말했다.

조형기 대한펜칵실랏연맹 총재는 "이창교 선수는 아직 어린 선수로 꾸준한 기술훈련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지원과 선수분석을 통해 2018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연극영화학과, 졸업생들 위한 '가족 참여 이색 학위 수여식' 가져



▲연극영화학과 졸업생들이 이색 졸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대학 연극영화학과가 2017학년도 전기 졸업식을 갖고 학과에서 주최하는 특별한 학위 수여식을 따로 열어 화제가 되었다.

이날 행사는 학교 졸업식이 끝나고 1시에 소극장에서 진행 되었으며 연극영화학과 졸업생 7명을 비롯한 교수, 재학생, 졸업한 선배, 학부모 등이 참석하였다. 소극장에서 열린 연극영화학과 수여식은 축하공연, 단막극, 송사와 졸업장 수여식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행사에 참여한 졸업생과 학부모, 재학생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어 학부모들이 직접 졸업생들을 위한 축사를 낭독하여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감동을 더했다.

연극영화학과 강대훈 졸업생은 "교수님과 후배들이 선배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가족과 저 또한 모두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다. 멋진 선배가 되도록 더 열심히 노력해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태규 학과장은 "졸업생들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원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특별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 제자들이 대학교의 주인공에서, 사회의 주인공으로 나아가 꿈꾸는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사회복지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전원 한국연구재단 학술지(KCI) 논문 등재

우리대학 사회복지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대학원생 4명 전원과 지도교수 2명의 논문이 한국연구재단 학술지(KCI)에 모두 등재됐다.

사회복지특수대학원 교수와 석사 과정 학생들이 팀을 이뤄 한국 다문화사회의 정책적 문제와 외국 다문화 구성 정책을 분석한 논문 두 편이 학술지에 모두 등재된 것이다. 김은정 교수와 김정은(4학기), 조수정(2학기) 학생은 다문화사회의 통합적 정책논의에 관한 논문으로 국내 저명 학술지인 Journal of Distribution Science에 게재가 확정됐다.

또한 정명희 교수와 김보숙(4학기), 김영욱(2학기) 학생은 한국의 반다문화사회 정서형성과 대응방안에 관한 논문으로 같은 학술지에 게재가 결정됐다.

특히 이번 논문은 단순한 학위 논문이 아니라 학생과 교수가 공동연구를 통해 전원이 학술지(KCI)에 등재된 드문 경우로 학계의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학생은 "괴산청소년문화의 집에 근무하면서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고, 자녀들만 집에 둘 수가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다"며 "논문을 준비한 결과가 좋게 나와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명희 교수와 김은정 교수는 "석사과정 학생들의 현장경험을 살려 연구중심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런 성장을 이끌어 보자는 결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말했다.



▲한국연구재단학술지 논문에 등재된 중원대 사회복지특수대학원 교수와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편집부〉

제13호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위대한 한국인, 자랑스러운 중원인



레저스포츠학과 박금숙 교수님

1. 위대한 한국인 100인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대한 한국인 100인에 제가 포함 되었다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수상은 또 다른 준비를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수상인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2.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은 어떤 상인가요?

주최는 2016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조직위원회이고, 주관은 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회, 국제문화 공연교류회, 스포츠코리아 신문, 대한민국보훈방송사와 관계기관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국민생활체육회 등입니다. 선정방법은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주최 기관에서 선정하는데 저는 교육 분야 우수 지도자상 부문에서 수상을 받았습니다.

3. 상을 받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글쎄요^^(웃음) 무엇보다 교육자라는 제 본분에 최선을 다해 임했던 것이 좋은 결과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체육학부 레저스포츠학과 교수로서 학생들의 학업지도는 물론 방학 때는 지역 아동을 위해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때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지역 저소득 아동들에게 골프수업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골프를 처음 접한 아이가 재능을 보일 때나, 잘하지는 못하지만 골프를 좋아하고 신기해하는 아이들을 보면 제가 교육자로서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또한 스포츠단의 골프부 감독으로서 학생선수들의 골프기술 분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보인 것이 상을 받게 된 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4. 제자들과 주위의 반응은 어떠한지?

수상 후 프로에 입문한 제자들과 지인들의 많은 축하에 행복했습니다. 다소 쑥스러움도 있었지만 스스로 자랑스럽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수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5. 마지막으로 인생선배로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2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운동선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보내고 은퇴를 하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적인 학업을 보충하여 결국 교수의 꿈을 이뤘습니다.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도전하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열정과 신념, 자신감을 갖고 많은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나고 우수한 학생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꿈을 이룬 중원人, 경찰 뱃지를 달다

경찰행정학과 김보라(10학번, 경기남부)학우와 이지은(11학번, 서울본청), 조석균(11학번, 충북지방청)학우가 서울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에 최종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합격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 스승께 인사를 드리러 온 김보라(이하 '김'), 이지은(이하 '이') 학우를 JR 언론장학기자가 만나보았다.



김보라 학생 이지은 학생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10학번 김보라입니다.

이 안녕하세요. 저는 경찰행정학과에 재학 중인 11학번 이지은입니다.

Q. 이번에 경찰시험에 합격하셨는데 합격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 아직 입교를 하지 않아 실감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행복합니다.

이 시험에 계속 떨어지다가 이번에 합격하게 되어 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Q. 어떻게 경찰이라는 꿈을 가지고 경찰행정학과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이 저는 원래 어릴 때부터 군인이 꿈이었는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셨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경찰행정학과에 들어와서 괴산 경찰서와 연계된 캠퍼스안전순찰대 같은 것을 했었는데 그 때 '아, 이 일이 나에게 맞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며 경찰이란 꿈을 다시금 확고히 다지게 되었습니다.

김 어릴 때 경찰 분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때 경찰이라는 직업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학과 수업을 받으며 더욱 적성에 잘 맞아 '이 길이 내가 가야할 미래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되어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Q. 힘들었던 수험생활 중에 기억에 남는 일이나 사람이 있나요?

김 수험생활 중 지치고 힘들었을 때 교수님들이 노량진에 찾아오셔서 밥도 사주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보라 언니와 후배들과 같이 공부를 해서 힘든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웃으며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박현준 교수님과 유영재 교수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셨어요. 박현준 교수님의 격려와 공부하라고 하는 잔소리(웃음)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Q. 난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나만의 합격 비결이나 공부법 같은 것이 있나요?

김 학원에 가기 전에는 학과 수업에 충실히 하고, 고시원을 적극 이용하며 자기 주도적인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밑바탕을 쌓으면 나중에 학원에 가서 공부하더라도 도움이 많이 돼요. 아, 그리고 여러 개의 수험서를 한 권에 요약해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것을 많이 참고해서 공부했습니다.

이 저는 경행 특채 (경찰행정학과를 재학 중인 학생을 채용하는 특별채용)라서 영어와 한국사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법 과목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최신 판례나, 판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어요.

Q. 시험에 떨어지고 난 후에 상실감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이 저는 시험에 떨어지고 한 3일 정도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할 시간을 가졌어요. 일명 잠수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는 그래도 꿈을 가지고 시작했으니 도중에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래 다시 한 번 해보자!'라고 나를 다잡고 다시금 시험 준비를 하였습니다.

김 저도 떨어지고 몇 일 정도 잠수를 하는데 유영재 교수님이 노량진에 오셔서 위로를 많이 해주셔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친구 중에 현재 경찰로 근무 중인 친구가 있는데 친구의 근무지에 가서 근무하는 것도 구경하면서 더욱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Q. 공부하면서 의욕이 떨어지고 하기 싫을 때! 하는 나만의 재충전 방법이 있다면요?

김 있긴 있는데.. 인터뷰할 만 한 내용이 아니라서요. 음주를 조금 하면서~!...(웃음)

이 또 친구들과 잠깐 카페에 가서 수다도 떨고요.

Q. 우리 중원대학교의 모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김 저는 시험 준비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포기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힘들어도 버티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합격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우셨는데 그 때 '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길 정말 잘했다.'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테니 다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또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고시원 같은 학교 시설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아서 혜택을 많이 누리지 못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설들이 잘 되어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 너무 놀지만 말고 고시원에서 시험을 준비한다면 도움이 많이 될 거에요!

이 저도 불합격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래서 포기를 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힘들더라도 자신이 가진 꿈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어요! 덧붙이자면 정말 중요한 시험일수록 체력이 밑바탕이 되어야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공부가 머리에 들어오지 않을 때, 운동이라도 하면서 체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최재순 기자 cjsoon93@jwu@ac.kr

따뜻한 한 끼로 나누는 따뜻한 마음



유난히도 추웠던 16년 겨울, 매서운 찬바람만큼 쓸쓸한 하루를 보내는 괴산지역 독거노인들을 위해 우리대학 다양한 학과 학생들이 뜻을 모아 '가온'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지역 독거노인분들과 따뜻한 한 끼를 나눴습니다.
올 겨울 따뜻한 온정을 나눈 '가온'은 지난 활동기간 동안 자신이 느꼈던 감정과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전해주었습니다.



12학번 의생명과학과 고영민

1 '가온' 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家집 가 溫 따뜻할 온) 여러 사람이 모여 따뜻한 집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뜻을 함께하는 여러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 따뜻한 온기를 소외된 이웃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지었습니다.



12학번 의생명과학과 이성진

2 '가온' 을 함께 이끌어 가는 친구들은 누구인가요?

함께하게 된 학생들은 총 7명으로 의생명과학과 고영민, 이성진, 정병서, 장승규와 임상병리학과 이안나, 김수경 자원순환환경공학과 김다영 학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학번 의생명과학과 장승규

3 가온의 활동 목적은 무엇인가요?

가온은 근거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을 선정하여 식사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소모임을 주선하여 독거노인의 심리적 외로움을 해소시켜주는 일명 '집밥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12학번 의생명과학과 정병서

4 '가온' 의 주된 활동은 무엇인가요?

괴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지원받은 반찬과 함께 독거노인의 집에 방문하여 같이 점식식사를 함께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이어감으로써 독거노인분의 건강상태 확인과 혼자 사시는 동안의 불편한 점 등을 파악하여 최대한 해결해 드리는 것이 저희의 주된 활동입니다



14학번 자원순환환경공학과 김다영

5 활동기간 동안 힘들었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이 점심시간에 독거노인의 집에 방문하여 함께 식사를 나누는 일이라 학교 밖으로 나가 점심식사를 하고 오후에 바로 수업을 들어야 하기에 독거노인분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점이 아쉽기도 하고 시간에 쫓겨 학교에 들어와야 하는 것도 약간은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5학번 임상병리학과 김수경

6 반면 보람을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처음에 독거노인의 집을 방문 했을 때는 약간의 벽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살갑게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도 약간의 마음의 벽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음의 벽이 점점 얇아지는 것을 느끼며, 학기 활동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저희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다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말하시면서 저희보다 저희를 더 밝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그 때 '참 보람 있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14학번 임상병리학과 이안나

7 앞으로의 '가온' 의 활동 포부는 무엇인가요?

괴산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아동과 독거노인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중원대 봉사동아리인 NON동아리와 같이 활동하기로 협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괴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시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온은 더 많은 독거노인 분들의 심리적 외로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더 열심히 활동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며 많은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12학번 의생명과학과 고영민

8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나요?

한 학기동안 고생한 저희 '가온' 팀과 저희의 활동을 지원해주신 괴산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분들과 여러 교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3호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중원 리포트

도플갱어





16년도 11월에 페이스북 학생기자JR페이지와, 중원대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를 통해서 실시한 '중원대학교 도플갱어, 내 친구 뭐 좀 닮았다!' 학우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으로 성황리에 마치게 되었는데요. 많은 재미있는 댓글들이 있었기에 고르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수많은 댓글 중 5명을 골라골라!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좌 하현우


우 권대우 학생

도플갱어 파일1 하현우

정말 리얼하게 닮았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권대우학우입니다!

권대우 학생 안녕하세요. 산업디자인학과 13학번 권대우입니다. 그냥 학생기자분이 하라는 대로 해서 찍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닮았네요. 어.. 학보에 실리는 것은 처음인데 인물이 좀 안사는 것 같네요. 실물이 더 나은데... 다음에는 한 번 더 안경 벗은 모습으로 학보에 실리고 싶습니다.

도플갱어 파일2 홍진호


좌 홍진호


우 이관식 학생

'폭풍저그 홍진호가 간다!' 사진만 봐도 목소리가 저절로 들려오는데요. 2등으로 유명한 프로게이머 홍진호의 도플갱어 학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게 두 번째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미 16년도 학생회 'Giant'의 '2'등인 부회장으로서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경찰행정학과 이관식학우입니다!

이관식 학생 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과 11학번 프로게이머 홍진호 닮은꼴 이관식입니다. 일단 JR 최재순 기자님과 닮은꼴 제보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 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홍진호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홍진호씨 이외에도 수많은 연예인과 만화캐릭터를 닮았다고 많이 듣습니다. 아, 요새는 살이 좀 오른지라 개그우먼 박나래를 닮았다는 말도 많이 듣는 것 같네요. 올라프도 몇 번 들었고요.^^

도플갱어 파일3 엄현경

최근 굉장히 뜨고 있는 배우 엄현경입니다. 엄현경의 도플갱어가 우리학교에 있다고 하는데요?

우, 우와... 앗, 항공서비스학과 백선민학우입니다!


좌 엄현경


우 백선민 학생

백선민 학생 안녕하십니까. 항공서비스학과 15학번 백선민입니다. 엄현경 닮았다는 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되었네요. 색다른 경험을 한 것 같아서 기쁘고 신기합니다! 중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7년에도 모든 일에 승승장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원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사랑합니다♥


좌 류승룡
우 정상현 학생

도플갱어 파일4 류승룡

(류승룡 기모찌!) 수많은 영화들로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카리스마 배우 류승룡! 류승룡의 도플갱어인 학우가 우리학교에 있다구요?

네, 정말 있습니다! 연극영화학과 정상현학우입니다!

정상현 학생 안녕하세요. 연극영화학과 14학번 정상현입니다., 저는 군복무 중으로 학생기자분과 직접 만나지는 못하였는데요. 지금껏 배우 류승룡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중원대학교 학생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순수한 열정 뜨거운 심장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파이팅!

도플갱어 파일5 나카무라 시도


좌 나카무라 시도


우 송철항 학생

네이버 평점 9.32의 전설의 일본멜로영화 '지금, 만나러갑니다.'를 알고 계신가요? '지금, 만나러갑니다.'로 우리나라에 알려진 남자배우 나카무라 시도, 그는 일본의 대중적인 배우인데요. 글로벌한 중원대학교답게 일본배우 나카무라 시도의 도플갱어가 우리학교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일까요?

사실입니다. 아니, 모두 동일인물 아닌가요? 바로 경찰행정학과 송철항학우입니다!

송철항 학생 안녕하세요. 경찰행정학과 12학번 송철항입니다. 나카무라 시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지만, 솔직히 제가 더 잘생긴 것 같네요. 17년 정유년, 닭의 해가 밝았는데 마침 제가 닭띠인 것을 보니, 이번 한 해는 저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마련 해 주신 JR학생기자단과 최재순 기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최재순 기자 cjsoon93@jwu.ac.kr

가방 속 이야기



'대학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방을 메고 캠퍼스를 걷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학생들은 매일 가방을 들고 다니는 만큼 가방 속 아이템들은 그 주인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학교 학생들은 가방에 어떤 것들을 넣고 다닐까요? 그들의 가방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임상병리학과 14학번 방혜빈

임상병리학과 학생답게 흰 가운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그 외에도 풋풋한 여대생에게 어울리는 알록달록 상큼한 색감의 아이템들이 많네요. 평소 귀엽고 밝은 색의 소품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날 건조해지는 피부를 위해 로션, 핸드크림, 립밤을 항상 소지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약통처럼 보이는 아이템이 뭔지 물어보았더니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하네요.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거죠"



경영학과 15학번 강동건

확실한 색깔을 지닌 일명 '생존형' 가방이라 할 수 있겠네요. 가장 눈에 띄는 물건은 아무래도 팩에 들어있는 '죽'입니다. 그리고 휴대용 플래시와 티슈, 우산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소지하고 다니는지 물어보니 하는 말이 "얼마 전 지진이 몇 차례 발생한 후 비상시 도움 되는 물품들을 가지고 다녀요"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들어오는 슬픈 종이가 하나 있는데... 휴학신청서... 혹시나 하고 물어보니 역시나... 군 입대를 준비 중이라 합니다... 잘 다녀 오십시오~

다녀오면 19학번 새내기들이 반겨줄 겁니다.



경영학과 12학번 최재순

뭐라 할 말이 없는 심플함의 극치입니다. 교재는 모두 개인 사물함에 넣어두고 다녀서 가방을 가볍게 한다고 합니다. 가방에는 보조배터리, 펜, 책, 그리고 우리학교 학보!! 역시 학생기자출신답게 가방에 학보를 챙겨 다닙니다. "새 학보가 나오면 항상 챙겨 봐요. 새로운 정보와 재미가 가득하거든요. 저희 학생기자들의 노력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다른 학생들도 학보를 재밌게 봐주었으면 좋겠어요." 역시 학보만 들고 다니면 다른 건 다 필요 없을 것 같군요. 재미와 정보를 다 담고 있는 학보가 필수템이니 명심하세요!

정종학 기자 jjh7689@jwu.ac.kr

ENGLISH CAFE에 드루와



조별과제할 공간이 없다고? 친구들과 설탕물 한 잔하며 얘기를 나눌 곳을 찾는다고?
고민할게 뭐가 있어 잉글리시 카페로 오세요!

친구들과 오순도순 모여 보드게임 한 판 할 곳을 찾는다고? 각종 카드게임부터
브루마블, 클루, 마작, 다트 등 다양한 게임을 카페에서 무료로 사용가능!



맨날 책으로만 공부하는 영어가 지겨울 땐? 외국인 교환학생들과 외국인 교수님들이 모이는
Hot place 잉글리시 카페! 언제든지 프리토킹이 가능하며, 원하는 교수님과 1:1 튜더링공부도 신청가능!

OPEN
월요일에서 금요일
15:00 ~ 22:30 까지
수 많은 혜택이 있는
잉글리시 카페!
위치 : 대외협력센터 옆



제13호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중원의 달인 達人





여러분은 중원 대에서 무엇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신가요?
졸업을 하기 전에 한 가지 정도는 최고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중원대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의 달인들을 모셔보았습니다!

한종민기자 kskkytt@jwu.ac.kr

공모전 달인 達人



임상병리학과 14학번
박윤진 학생 (공모전 4회 수상)

Q 다수 입상기록이 있는데 그에 대한 노하우는?

1학년 때 필수 과목이었던 글쓰기와 커뮤니케이션 수업과 2학년 때 교양으로 들은 언어와 사회 강의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평소에 학과생활을 열심히 함으로써 견문을 넓히고 그것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Q 공모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공모전의 종류는 에세이공모전, PPT 공모전, 레포트 공모전이 있고 중원대학교의 경우 한 학기에 한 번씩 공모전을 개최하는데 학기 동안에 수업 중에 사용한 리포트나 PPT 그리고 자신의 에세이 등을 제출하여서 객관적인 심사를 받고 심사위원들로부터 보완할 점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받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Q 공모전을 입상하기 위해 조언을 해준다면?

학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들 앞에 서서 하는 발표에 자신이 있으시면 PPT 공모전, 리포트에 자신이 있으시면 리포트 공모전, 그리고 자신이 쓴 에세이가 있다면 에세이 공모전에 지원하여서 상장과 소량의 상금도 탈 수 있으니 일단 좌절하지마시고 지원하셔서 부딪혀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봉사의 달인 達人



사회복지학과 14학번
박소라 학생 (누적 봉사시간 448시간)

Q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 봉사는 전공에서 자원봉사시간을 30시간 채워야 하는 수업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지만 봉사의 재미를 알게 되어 지금까지 쭉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Q 봉사를 주 몇 시간 나가나요?

사실 봉사활동 시간으로 봉사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활동은 보통 주에 평균 4시간 정도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꾸준이 한 것 같습니다.

Q 봉사를 정할 때 조언을 해주자면?

봉사를 정하실 때는 일단 어느 쪽에 성격이 맞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실내봉사나 야외봉사 등 자신의 성격을 반영하여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봉사를 신청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상자를 정하는 것이 봉사를 정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나 노인 대상자를 선정하여 봉사하게 되면 자신이 선호하는 대상자를 마주하며 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좀 더 봉사에 대해 흥미를 느낄 수 있고 보람된 봉사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봉사활동을 혼자 찾는 것이 힘들다면 교내 동아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괴산 내에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는 둥굴레 봉사동아리나 교외에서 활발히 봉사활동을 하는 NON과 RCY에 가입하시면 쉽게 봉사 활동지를 찾고 봉사를 할 수 있으니 봉사동아리에 가입하는 방법도 봉사를 정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성적의 달인 達人



컴퓨터시스템공학과 15학번
김다현 학생 (평균성적 4.3)

Q 공부를 잘하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공부를 잘한다' 보다는 노력을 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해요. 남들보다 공부에 대한 머리가 뛰어나거나 암기력이 좋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수업시간에 친구들은 바로 이해하고 응용하는 반면 저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더 노력해야겠다. 머리가 안 되면 무식하게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남들이 한번 보면 전 5번 10번 20번 계속 쓰고 보고 읽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머리에 익히게 되고, 한 번 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몇 번이고 계속 보다 보면 이해가 된다고 하고 깨달을 때가 많았어요.

Q 공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공부는 솔직하게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는 선생님, 부모님이 공부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정작 나는 놀고 싶은데 억지로 공부를 해야 하니 스트레스가 쌓이죠. 또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머리에 밀어 넣으니까 그것도 스트레스고 또 이것으로 시험을 본다니 압박감에 스트레스고...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만큼 노력으로 성적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받아왔던 스트레스가 순식간에 사라지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만큼 그 또한 성취감이 대단해요. 또한, 누군가에게 알려주거나 내가 이해했구나! 이런거구나하고 깨닫는 것도 나름 공부를 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헬스의 달인 達人



법무법학과 13학번
김지영 학생

Q 헬스를 꾸준히 하시는데 꾸준한 운동이 주는 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헬스를 꾸준히 하죠. 그로 인해 몸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운동능력도 향상하는 걸 몸소 느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신감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게 가장 보람찼어요. 뭐 무게가 생긴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운동을 함으로써 사람들과 친해지고 또 친해지는 사람들도 다 건강한 정신과 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여하튼 건강한 정신과 몸이 만들어지는 게 운동의 가장 큰 이점이죠!

Q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한 팁은?

흔히들 요즘 어깨 깡패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시 생각해보면 조금 더 남자다운 체형을 만드는 것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탄수화물과 지방을 많이 섭취해 몸에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 힘으로 많은 무게를 들어 올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아 물론 관절에 무리가 안 가는 선에서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영어의 달인



임상병리 13학번
서영아 학생 (토익 점수 905점)

Q 토익 공부 방법은?(ex 학원, 인강, 독학, 학교수업)

토익 공부는 학원에 다니기도 했고 독학으로 얻은 부분도 있어요. 제가 토익을 접하기 전에 영어에 관심이 많았는데 tvN에서 하는 스타특강 쇼를 보다가 회화와 토익 LC를 동시에 잡는 법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노팅힐이라는 영화를 반복해서 보고 대사를 외우고 따라 하기까지 했다고 했는데요. 저도 그 영화를 반복해서 보니까 대사의 일부분을 따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에는 미국식 발음이 많아서 토익시험에서 영국식, 호주식 발음이 나오면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물론 모든 토익 공부를 영화만 봐서 했던 것은 아니고 나머지는 학원에 다니면서 보충하게 됐는데요. 저는 면학 분위기가 필요해서 강남에 있는 학원에 다니게 됐어요. 학원을 선택할 때에는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무조건 따르기보다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로 강의하는 선생님을 고르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대형 학원 같은 경우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곳에서 강의하기 때문에 쉽게 무료강의를 통해 강의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어요!

Q 고득점을 얻기 위한 팁을 알려주자면?

고득점을 얻기 위한 팁은요 토익교재가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데 그 많은 책은 다 저자가 다르고 설명하는 방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론교재는 LC, RC 하나씩만 구매를 해두고 반복해서 본 다음에 문제풀이용 문제집만 여러 개 구매해서 푸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욕심내지 말고 학원에서 나눠주는 문제를 꾸준히 풀어보는 게 좋아요. 어차피 토익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와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고 수학 문제처럼 같은 이론을 이용한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답 노트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유형별로 이론을 떠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십의 달인



항공재료공학과 12학번
오지훈 학생 (항공단대회장)

Q 리더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자신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과 남을 배려하고 그 속에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더 혼자만의 생각과 뜻이 아닌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하나 이상의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 상황 속에서 행사되는 대인 간의 영향력, 또는 한 사람이 어떤 종류의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사람이 그에 따라 행동하면 그 결과가 개선 될 것이라는 확신을 하게 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Q 리더로서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리더가 되기 위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뚜렷한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을 제시하고 그것들을 꼭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구성원들에게 신뢰를 주고 믿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생긴다면 구성원들 스스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는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리더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들을 위할 줄 아는 희생정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배려해 준다면 구성원들 또한 리더를 믿고 따라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의 달인



스포츠 건강의학과 12학번
이임철 학생

Q 스포츠 마사지란 무엇인가요?

스포츠 마사지란 근육을 주무르거나 누름으로 혈행과 림프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컨디션 회복 및 부종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전용 도구를 이용한 ASTMIASTM 테크닉과 스포츠마사지를 결합하여 저만의 테크닉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Q 목표 인원은 얼마인지 왜 그렇게 정했는지?

목표 인원은 1학기 100명 2학기 225명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스포츠 의학과 트레이닝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보았을 때 도수치료가 가능한 멀티 트레이너가 되기 위하여 1학기 때부터 해부학을 공부하였습니다. 또 사람을 직접 만져보고 다양한 근 골격계 질환의 기전을 '연부조직의 유착'에 관점에 기인하여 이를 분석하고 마사지를 하며 사람을 직접 만져보고 실습 했습니다.

학기 중 최대한 많은 인원을 실습하고 케어해 보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가로세로 18x18(=324) 치수의사이즈의 액자(오른쪽 사진)로 제작하여 대학 시절 기록으로 간직



해 보고 싶었습니다. 마사지를 하며 느낀 점 역시 오랜 좌식생활로 이상근의 단축과 그에 기인한 라운드 어깨숄더, 거북목 척추 옆굽음증척추 측만, 골반 전 방 경사 등 현대인들이 수많은 근골격계 관련 질환을 떠안고 있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며 스포츠 의학의 밝은 전망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학생상담센터 프로그램 안내

개인상담 1:1 대면
성격, 대인관계, 정서안정, 스트레스 관리, 진로 및 적성 성과 이성

집단상담 상호교류 성장모임
자기성장, 대인관계 진로탐색, 스트레스 감소

심리검사 나와 타인 이해
성격검사, 진로검사 학습검사, 인성검사 지능검사, 투사검사



➡ 중원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등 중원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방법

직접방문 전화상담 온라인상담 ➡ 접 수 ➡ 맞춤검사 및 개인상담 같은 문제 친구들과 나누기 전문기관 연결

중원대학교 | 학생상담센터
방 문 상 담 : 학생회관(S동) 210호 학생상담센터
전 화 상 담 : 043-830-8142~5
온라인상담 : http://counsel.jwu.ac.kr
이 용 시 간 : AM 9시~PM 6시 – (점심시간 제외 PM 12시~13시)

제13호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조금만 노력하면 별거 아닌 과제





4학기 동안 조별과제를 여러 번 경험해보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로 기본적인 세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토론의 장인 이곳 대학에서 조별과제는 새내기에게는 술자리, 취준생에게는 취업준비와 같은 것이라 피하려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 대학교에 와서 다른 학과 다른 학번, 동기 또는 선배님들과 함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 그저 낯설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힐 테지만, 다음 세 가지만 신경 써서 노력하면 조별과제를 하는데 훨씬 수월할 거에요!



1 "모르는 건 물어보기"

'태도'와 직결된 문제에요. 하나의 조직에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나아가 그 각자의 노력이 합쳐져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이것들이 바로 교수님이 조별과제를 내주시는 이유이지요. 언제, 어디서 만나는지 그때까지 무엇을 준비하면 되는지 그 무엇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되도록 꼬치꼬치 물어보는 귀찮은 후배가 되어 봅시다. 더 적극적으로 같은 학과든 타 학과든 주변에 물어 어느 선배를 찾아가 도움을 구한다면, 당신은 그야말로 최고.



2 "제대로 된 자료 검색하기"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과제를 하기 위해 주로 인터넷을 사용합니다. 인터넷은 자료를 검색하기에 가장 편하고 빠르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인터넷에 정보가 그토록 많은 만큼 잘못된 것 또한 그 만큼 많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은 레포트의 시작과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올바르게 수집할 수 있어야 과제 자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가 과제를 할 때 실제로 즐겨찾기를 해놓고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이자 많은 대학생들이 애용하는 사이트에요. 1학년 때부터 좋은 습관을 길러서 장학금에 가까워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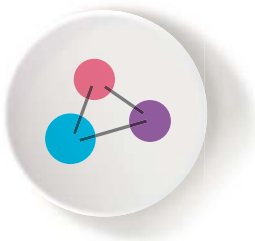
국회도서관 〈http://www.nanet.go.kr〉
- 다양한 읽을거리와 논문을 찾을 수 있어요.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cop/main.do〉
- 문화 트렌드에 관한 자료가 궁금하면 이곳으로!

국가통계포털 〈http://www.kosis.kr〉
- 다양한 분야의 통계자료를 얻을 수 있답니다.

네이버 블로그, 책쟁이의 파워포인트 〈http://m.post.naver.com/my.nhn?memberNo=610〉
- ppt,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에요, 차근차근 보고 따라해 보아요!

마지막으로, 가장 좋은 자료는 바로 책입니다. 그 어떤 자료보다 공신력이 있으며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기 때문이지요. 5층에 가면 인문, 기술, 예술 등 각 분야별 도서관이 있습니다. 과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책을 여기 저기 찾아다니며 그 책들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 모습은 모두가 그리는 대학생활의 로망 중 하나 아닐까요?



3 "만나서 공유하기"

정상적으로 조별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면 조원 모두가 두 번 이상은 만나게 됩니다. 조모임에 참석하지 못 할 때에는 언제 무엇 때문에 그날 그 시간이 안 되는지 단체 채팅방에서 꼭! 명확히! 말하도록 합시다. 이런 이유에서 처음 조 모임을 가질 때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각자 시간표를 공유하고 되도록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분위기에서 과제를 수행한 조는 결과물에도 그것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끌어야 하며 누군가는 뒤에서 밀어주며 조별과제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강신청에 성공한 과목이든 실패한 과목이든, 평소 관심이 있었던 과목이든 그렇지 않은 과목이든 최선을 다하는 중원인이 됩시다.

배정민기자 Justdoit@jw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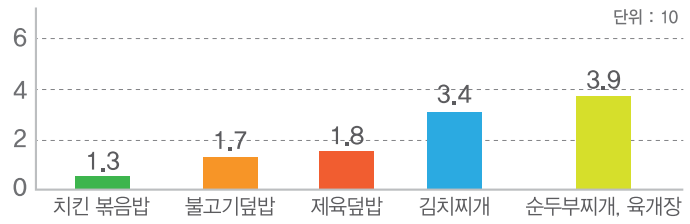


학교에서 분식, 중식, 한식 등 다양한 음식과 학식에는 나오지 않는 메뉴들이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자주 가는 곳! 우리학교의 만남의 장소이자 교내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는 카페테리아! 괴산 주민들도 학교에 오면 먹고 간다는 그곳! 이렇게 학교에 오는 사람들의 허기를 채워주는 곳이지만 카페테리아에는 은밀한 비밀이 있었으니 그것은 한식의 메뉴가 하루하루 바뀐다는 점! 기자의 궁금증으로 시작된 카페테리아 한식 빅 데이터! 지난 1년 동안 어떤 메뉴가 자주 나왔는지 데이터로 알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메뉴는?

순두부찌개와 육개장이 총 39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김치찌개가 34번으로 순두부찌개·육개장 뒤를 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가장 많이 나온 메뉴들이 전부 찌개 종류였기에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은 꼭 나오는 찌개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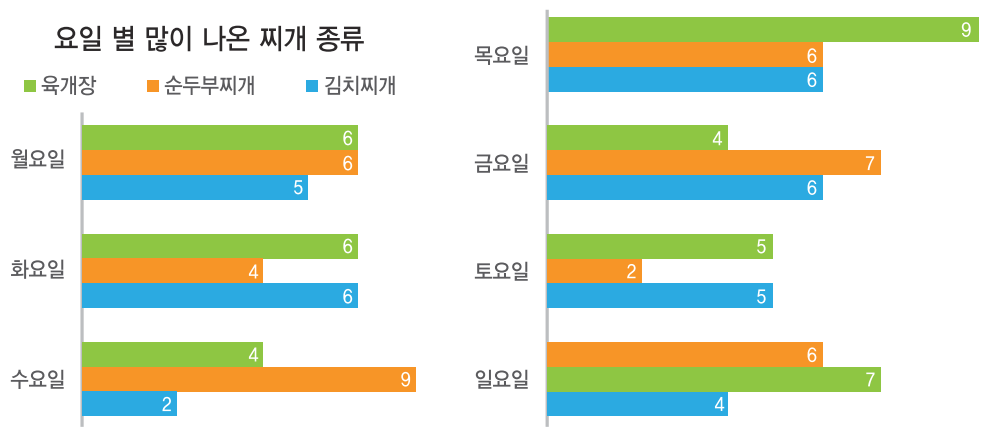
그렇다면 각 찌개들은 어느 요일에 가장 많이 나올까요?



어느 요일에 어떤 찌개가 많이 나왔을까?

월요일에는 세 찌개 모두 비슷하게 나왔는데요. 화요일에는 순두부찌개가 다른 찌개보다 적게 나왔으며,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는 7번으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목요일에는 육개장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월요일에는 세 찌개 모두 빈도수가 비슷하지만,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순두부찌개는 다른 찌개 보다 화요일에는 적게 나왔지만, 수·금·일요일에는 모두 7번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을 제외하고 골고루 나왔고, 김치찌개는 수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에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요일별 많이 나오는 덮밥 종류는?

카페테리아 메뉴는 찌개와 덮밥이 같이 나오지만, 하루가 지나면 역시 바뀌기에 덮밥 종류 역시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가장 많이 나온 덮밥 종류는 무엇일까요?(조사 기간 동안 4회 미만으로 나온 것과 계절메뉴는 표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김치볶음밥(월), 돈까스덮밥(화), *김치즈오므라이스(수), 불닭볶음밥, 소시지볶음밥(목), 불고기덮밥, 제육덮밥(금), 불고기덮밥(토), 제육덮밥(일)이 각 요일별로 많이 나왔으며, 이 중 불고기 덮밥과 제육덮밥, 치킨 볶음밥은 요일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나왔지만, 특정요일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치즈오므라이스=김치+치즈 오므라이스의 준말

학우들이 추천하는 카페테리아 메뉴는?

학우들이 추천하는 카페테리아 메뉴는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돈까스 카레덮밥과 딸기피자&크림스파게티, 볶음짜장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볶음짜장은 해물과 어우러져 풍미가 깊은 맛이 나고, 적당히 매콤하여 매운 것을 못 먹는 분들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싸면서도 양이 많아 많은 분들이 추천해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년, 두 학기 동안 중원 카페테리아 한식메뉴의 빅 데이터를 알아보았습니다.

※주의사항 참고용으로 봐주시길 바라며, 이 자료가 올해에도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미로 읽어 주세요^^

조사기간 : 1차 2016. 3. 6.~5.18 / 2차 9. 1~9.30 / 3차 10. 4~10. 21

카페테리아 이미지 출처 : 중원대학교 IMAGINE 블로그

목 록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김치볶음밥	5		2	2		1	1
김치즈오므라이스	3	1	6	1			
김치콩나물우동					2		
낙지덮밥	1			1	2	3	5
돈까스덮밥		6	1				
돈까스카레덮밥	1	3	4		1		
마파두부덮밥	2	1	1	1			
불고기덮밥	3	1	1		5	4	3
불닭볶음밥	2	1	1	5			
불닭오므라이스	1		4				
새우볶음밥				1	3	2	2
소고기볶음음밥	1			1		3	2
소시지볶음밥				5	2	2	2
오므라이스	1	3	2				
제육덮밥	1		1	4	5	1	6
치킨볶음밥	1	1		3	3	3	2
치킨덮밥	2	4	1	1		1	
치킨데리야끼덮밥	1			2	1		

제13호 2017년 3월 2일 목요일

마음의 소리 너 내 룸메가 되라!

2017년 새롭게 시작되는 새 학기, 그리고 새로 만나게 될 새로운 룸메이트! 시작될 한 학기를 즐겁고 편안하게 보내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룸메이트입니다. 혹시 룸메이트와 트러블이 있나요?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렇다면 당신의 룸메이트의 마음을 살짝 엿 보실까요? 중원대학교 학우 86명에게 물었습니다!

1. 룸메이트 하고 싶은 친구! 어떤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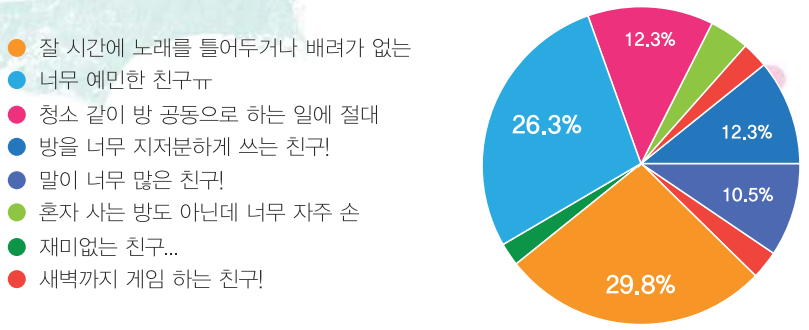


압도적인 수로 1위는 재미있는 친구가 차지하였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한 학기 간의 룸메이트가 아닌, 계속 함께 할 친구를 원하는 것 같네요!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 한 것은 깔끔한 친구입니다. 사실 저도 깔끔한 친구에 투표하였는데요. 기숙사는 혼자 쓰는 공간이 아닌 만큼 서로를 위해서 더 청소에 신경을 써야겠죠?

세 번째! 같이 새벽까지 게임 달릴 친구가 올라왔네요. 남자 기숙사에서는 새벽까지 모니터가 꺼지지 않습니다. 여기에 투표한 남자 학우들은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겠군요!

2. 반대로 이런 친구와는 정말 방 같이 쓰기 싫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방 쓰기 싫은 친구 그 첫 번째는! 룸메이트에 대한 배려가 없는 친구가 올랐습니다. 룸메이트에게 배려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때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한 번씩 배려해 준다면 서로에게 더 좋은 룸메이트가 될 수 있겠지요?

두 번째 예민한 친구가 올랐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계속 마주치고 같이 살아야 하는 룸메이트가 너무 예민하게 행동한다면 서로서로 지치겠지요?

세 번째! 청소 등 방 공동으로 하는 일에 절대 손대지 않는 친구! 매주 시행되는 기숙사 클린데이! 평소에 청소를 하지 않던 친구들도 이 날 만큼은 청소에 동참합시다~

2-1. 이런 친구와는 방 같이 쓰기 싫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방 쓰기 싫은 친구! 재미있는 이유를 딱 세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1) 배려 없는 친구!**

내 건담 프라모델을 건드리고 작살내 제 마음은 상처가 나고 다시 고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아닌 몇 번이나 그러니 제가 좋아 하겠나요. 그래도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고 긍정적이게 생각하려고 하지만, 그 친구와 다신 같이 방을 쓰고 싶지 않네요...고독한 별이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이렇게 써봅니다〉〈



ㅠㅠㅠ^^ 정말 마음이 아픈 사연입니다. 룸메이트와 아무리 친하더라도! 룸메이트가 소중한 만큼 물건도 소중히 다루어주세요~

2) 재미없는 친구!

제가 재미없기때문에 재밌는 친구가 있으면 좋겠어요. 둘 다 재미없으면 안되잖아요.

재미있는 룸메이트 만나서 행복하시길 바래요!

3) ???

룸메이트가 자고있으면 괴롭히고 싶은데 못 괴롭히게 하면 그것은 나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함.

...네? 어.. 네. 다들 이 분 룸메이트 잘 피하시길 바랍니다.

3. 내 룸메이트가 이 부분만은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내 룸메이트가 이 부분만은 꼭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많은 학우들이 바라는 세 가지만 뽑아보았습니다.

1) 서로에 대한 에티켓을 지킬 줄 아는 룸메이트!

한 학기 동안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친해지기 쉬운 룸메이트, 하지만 아무리 친해졌다고 하더라도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은 중요합니다.

2) 청소 등 룸메이트로서 해야 할 일을 할 줄 아는 룸메이트!

역시 한 공간을 공유하는 룸메이트로서 청소는 기본적인 에티켓입니다. 개인공간이 정리되지 않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룸메이트에게 피해를 주지는 말아야겠죠?

3) 좋은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다.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지내는 친구와 관계가 불편하다면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겠지요? 오늘 룸메이트와 싸웠다면 당신이 먼저 화해의 말을 건네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룸메이트도 지금 당신과의 화해를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중원대학교 학우들의 룸메이트에 대한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았습니다. 같은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룸메이트로서 친하게 지내고 가까워 질 수 있겠지만,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싫은 부분, 맘에 들지 않은 부분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룸메이트와 함께 생활하면서 더 친해지는 친구들도 있지만 오히려 아예 말을 섞지 않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물론 이 학우들의 '마음의 소리'를 참고한다면 당신은 좋은 룸메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 적혀있는 이 글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룸메이트와 직접 대화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맞추어 간다면 지금의 룸메이트가 계속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최재순 기자 cjsoon93@jwu.ac.kr

Freshman 15

완벽한 대학생활을 위한 꿀팁



기숙사 방 픽 방법



어떤 방이 넓을까? 어떤 방을 써야 한 학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의 고민일 것이다. 옛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꿀팁은 도면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도면을 볼 때 중점을 두어야 할 점은 화장실이 몇 개인지, 엘리베이터에서 얼마나 먼지, 정수기에서는 가까운가 등 아주 사소한 것들이다. 이런 사소한 것들은 한 학기 동안의 기숙사 생활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시간표 짜기

대학교 수강신청 중,
하루만 공강을 만들 수 있다면?

월요일 VS 금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
1교시						
2교시		자료구조		자료구조		
3교시	알고리즘		이산수학		알고리즘	
4교시						
5교시	이산수학				이산수학	
6교시						

월요일 공강 - 유일하게 쉴 수 있었던 주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행을 간다면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어깨빵을 경험하며 맛집을 찾아 헤맸을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 월요일! 어디를 가도 한산한 거리에 마음마저 뻥! 맛집을 가도 웨이팅 없이 즐길 수 있다.

금요일 공강 - 불금을 즐기기 위한 최상의 선택은 금요일 공강!! 대학생의 금요일은 더 이상 평일이 아니다. 밀린 과제를 하고, 한 주의 강의내용을 정리하는 등 완벽한 주말을 만들기 위한 디딤판 같은 요일이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뒤의 개운한 마음으로 즐기는 금요일은 말 그대로 불타는 금요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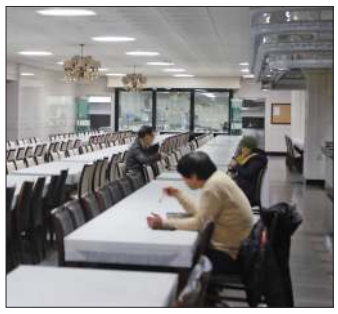
엘리베이터 타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학교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엘리베이터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강의 시작 15분 전 방을 출발한다면 엘리베이터를 탈 생각을 하면 안된다. 강의시간 20분 전 출발한다면, 운이 좋다면 탈 수 있다. 하지만 강의 시작 30분 전 출발을 한다면 반드시 탈 수 있을 것이다. 그까짓 엘리베이터 안타고 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높은 층에서 강의를 듣는 학생일 경우 어찌어찌 올라가더라도 가쁜 숨과 타는 목, 흐르는 땀으로 강의에 집중할 수 없을 것이다.

점심식사

결국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를 한다. "잘 먹는다" 이 부분은 강조하고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부분이다. 우리학교 점심식사 가격은 타 대학과 비교해도 저렴한 편이다. 여러 설문조사를 통해 식단의 질 또한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싫어하는 식단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교내 카페테리아를 이용해 보자. 분식, 양식, 중식 등 원하는 음식을 방으로 가는 길에 사먹으면 된다. 그것도 싫다면 강의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외부 음식을 주문해도 무관하다.





재학생 버프 이용하기

재학생의 버프를 활용하여 우리학교 시설이용 요금도 할인받고 체력 UP!, 용돈도 절약하기! 학생증만 있다면 OK!

김병국 기자 kbk0777@jwu.ac.kr







장 소	강화효과 (버프)	문 의
기숙사	체력 +40↑ 정신력 −15↓	043-830-8242~7
헬스장	힘 +30↑ 체력 −10↓	043-830-8729
한국관	체력 +20↑ 돈 −10↓	043- 830-8500
잉글리쉬 카페	언어 +30↑ 정신력 −10↓	
학생 식당	체력 +40↑ 미각 −10↓	
목욕	정신력 +30↑ 체력 −5↓	043- 830-8731
박물관 & 식물원	정신력 +50↑ 체력 −10↓	043-830-8283~5
수영장	정신력 +20↑ 체력 −10↓	043- 830-8731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이야기



어떠한 길을 걸어가거나 걸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길을 걸어본 경험자의 조언을 듣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우리학교 2017년도 단과대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하며 겪어온 경험을 비추어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김병국 기자 kbk0777@jwu.ac.kr

이공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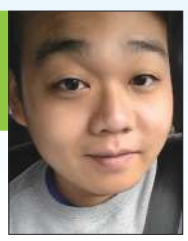


유재홍 메카트로닉스학과 13학번 (카톡아이디 : skerll61)

안녕하세요. 2017년도 이공대학 회장직을 맡은 유재홍입니다.

우선 우리학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대학생활을 하며 시간이 날 때마다 '여행'을 다니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과제와 시험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혼자 혹은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합니다. 항상 밝은 대학생활을 기원합니다!

체육학부



엄재룡 레저스포츠학과 12학번 (카톡아이디 : djawo135)

신입생 여러분들 스무 살이 되신 걸 축하드리고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2017학년도 체육학부 대표 레저스포츠학과 12학번 엄재룡입니다.

제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동기들과의 추억입니다. 기숙형 대학이라는 특성상 하루 중 같이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 친구들과 함께 살을 맞대고 지냈던 시간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대학생활 동안 자기계발을 위해 여러 활동을 접해야한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 무엇을 잘하고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를 찾는다는 건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4년 동안의 시간을 뜻깊게 보내셨으면 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술학부



우환수 산업디자인학과 13학번 (카톡아이디 : thekal02)

안녕하세요. 늦었지만 새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학교 학생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모두 웃음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십시오!^^ 저는 2017학년도 예술학부 대표를 맡게 된 산업디자인학과 13학번 우환수입니다.

인생에 한 번 뿐인 대학생활을 즐기며 신나게 놀아보기도 하고 사회생활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는 대학교에서 작은 직책이라도 맡아 여러 가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많이 힘들고 지칠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항상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극복해 나가는 우리학교 학생들이 되길 바라며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예술학부 대표가 되겠습니다.

인문사회과학대학



박준규 경찰행정학과 12학번 (카톡아이디 : pjk986@naver.com)

안녕하십니까! 2017학년도 인문사회과학대학 회장 경찰행정학과 12학번 박준규입니다.

우선 우리학교에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학교의 특성상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기숙사 생활이 자립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학시간이 없다보니 그 시간을 자기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원하는 자기개발 분야가 있다면 학교에서 무료로 강의, 교재, 수험료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에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훗날 졸업할 날이 왔을 때 진정한 성인으로 성장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의료보건대학



박태민 임상병리학과 15학번 (카톡아이디 : 01033380483)

안녕하십니까! 재학생들과 새로 입학하는 17학번 학우 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의료보건단대 회장직을 맡게 된 임상병리학과 15학번 박태민입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이 대학생활을 하는 동안 꼭 해봐야 할 것으로 저는 교내활동이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제가 말하는 교내활동이란 학과 내 임원, 각 단대의 학생회, 총학생회 그리고 여러 가지 동아리 등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들의 공통점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더 많은 일들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학생들에 비해 좀 더 바쁘고 피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땐 뿌듯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재미있고 나은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긍정적으로 그리고 최선을 다 해 임하세요! 그럼 못 해낼 일이 없습니다. 뒤돌아봤을 때 떳떳하다고 느낄 수 있는 자기 자신이 되셨으면 합니다.

항공대학



오지훈 항공재료공학과 12학번 (카톡아이디 : shrdma31)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7학년도 항공대학 회장 항공재료공학과 12학번 오지훈입니다. 먼저, 우리학교에 합격하신 신입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어느새 4학년이 되어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을 전할 수 있는 학년이 되었네요. 제가 그동안 대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것은 도전하는 자세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이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도전조차 하지 못하였습니다. 평범한 학생으로서 그저 저에게 주어진 '학생'이라는 역할에 맞게 학업에만 열중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역 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어 이 학교를 위해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홍보대사를 지원하여 1년 동안 학교의 홍보를 위해 활동하였고 그 경험을 토대로 단과대학 회장이라는 중요한 직책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볼 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것, 그 도전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오로지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 도전하십시오. 저는 후배들에게 이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 한번 뿐인 4년의 대학생활, 후회하지 말고 도전하는 자세로 대학생활을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남은 학교생활 동안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속! 동아리 월드!

대학교에 입학하면 공부도 좋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도 자유롭게 공유하고 즐기면 캠퍼스 생활이 더욱더 즐거워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원대학교 14개의 동아리 리스트를 뽑아 준비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중원대학교 동아리들의 화려한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동아리 관련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학생 장학팀(M2-212호)로 찾아와 주세요. (동아리들은 모두 7층 S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정호룡 기자 jhr13135@jwu.ac.kr

E.N.T 동아리장
안정환(메카트로닉스학과)
☎010-4993-6425

그 첫 번째! 중원대의 춤과 노래로 다재다능한 실력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뭉쳐진 'E.N.T' 매축제마다 커버 댄스와 노래로 축제 분위기를 띄우는 숨은 공신들이죠! 실력만큼이나 학생들에게 인기가 정말 상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외에서의 활동과 봉사 활동도 한다는 점! 정말 다재다능하지 않습니까!? 춤과 노래, 랩을 좋아하거나 묵혀두기 아까운 끼를 가지셨다면 'E.N.T'에서 마음껏 펼쳐보는 것은 어떨까요? 현재 회원 수 30명으로 회원 모집 방법은 오디션과 지인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클라이맥스 동아리장
김경환(경찰행정학과)
☎010-9401-0504

우리 학교 대표 밴드 동아리 'CLIMAX' 축제는 물론 버스킹 및 교외 활동으로 학업 스트레스로 지친 학생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있습니다. 밴드 양대 산맥이었던 '노블레스'의 멤버들이 대거 가세하면서 학교 No.1 밴드 동아리로 급부상했죠! 나좀 악기 다룰 줄 안다!! 아니면 어? 한번 배워보고 싶었는데?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 'CLIMAX' 추천해 드립니다! Rock N Roll!! 현재 회원 수 14명으로 회원 모집 방법은 오디션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JUST 동아리장
이현우(레저스포츠학과)
☎010-5815-2351

괴산 축구 대회에서 전승으로 우승한 어마어마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교 대표 축구 동아리 'JUST' 학교 유일한 축구 동아리인 데다가 실력까지 겸비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실력보다도 축구에 대한 열정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희와 한 게임 어떠세요? 현재 회원 수 28명으로 회원 모집 방법은 실기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WESOME 동아리장
강신우(사회복지학과)
☎010-6636-5971

축구가 있다면 우리가 빠질 수 없지! 우리 학교 대표 농구 동아리 'AWESOME' 실력 상관NO! 열정만 있으시다면 충분합니다! 동아리가 생긴 지 얼마 안됐지만 기획하고 있는 대회도 넘친다는 점! 서로 배우면서 실력을 키워 갑시다! 현재 회원 수 20명으로 회원 모집 방법은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쌍쌍 동아리장
이한림(사회복지학과)
☎010-9941-5311

스트레스가 많아 풀고 싶은가요? 그럼 저희 볼링 동아리 '쌍쌍' 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처음이신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친해지고 스트레스도 풀고 즐기다 가시면 그게 다입니다! 물론 처음엔 어렵겠지만 익숙해지시면 볼링도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볼링의 매력에 중독 되실걸요? STRIKE의 쾌감을 느껴보세요!
현재 회원 수 32명으로 회원 모집 방법은 인원 충족시 마감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니 빠른 지원 바랍니다

ONE BEAN 동아리장
한태일(경영학과)
☎010-7231-7739

운동도 좋지만 때론 삶의 여유를 가지고 싶지 않으신가요? 원두의 향이 당신의 삶에 여유를 드릴 겁니다. And 커피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게 쌓인다는 사실!! 커피 한잔의 여유~ 바리스타 동아리 'One Bean' 현재 회원 수 45명으로 회원 모집 방법은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혜윰 동아리장
장정규(사회복지학과)
☎010-4765-4332

학교 공모전을 비롯한 여러 공모전 수상경력이 있는 공모전의 대가들이 모였습니다! 대학교에 왔는데 공모전에 한번 나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첫걸음을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공모전 동아리
'혜윰' 현재 회원 수 18명으로 회원 모집 방법은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EUS 동아리장
배정민(경영학과)
☎010-8725-6217

영어가 어려우신가요? 저희와 함께 다른 공부법으로 제대로 한번 배워봅시다~! 아마 영어가 쉬워지고 모국어처럼 술술~귀에 들어오실 테니까요. 토익? 만점? 금방입니다! 영어 스터디 동아리 'JEUS' 현재 회원 모집은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APP 동아리장
김동현(컴퓨터시스템공학과)
☎010-3136-1906

컴퓨터시스템공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지금까지 이끌어 온 'APP 동아리' APP 동아리에서는 자바, 하드웨어, C언어 등 세부적인 부분들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IT경진대회에서 수상도 하고 상금을 탐으로써 컴퓨터 관련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는 엄청난 메리트가 주어지는 아주 좋은 동아리죠!
현재 회원수 40명으로 회원 모집 방법은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JW-RCY 동아리장
박소희(임상병리학과)
☎010-9880-3244

대한적십자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로 교내 헌혈 활동 등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 정신을 배우고 싶다면 'JW-RCY'가 딱 입니다! 1365 나눔 포털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봉사시간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다른 학교 학생들과 활발한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 최대의 장점!! 이것으로 인맥도 넓어지고 봉사도 하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N.O.N 동아리장
김현아(사회복지학과)
☎010-8462-2116

교내 외 따질 것 없이 여러 활동으로 우수동아리 상들을 휩쓸어 버린 중원대학교 내의 대표 사회공헌 봉사 동아리 'N.O.N'! 독거노인들과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독거노인들의 자살을 예방하는 이른바 '집밥 프로젝트'와 꾸준한 교육 기부 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봉사 동아리! 우수 동아리로 선정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회원 수 40명으로 회원 모집 방법은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둥굴레 동아리장
박소라(사회복지학과)
☎010-7311-2942

또 하나의 봉사 동아리로 괴산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여 활동하고 고귀한 봉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둥굴레'!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타 학과 학생들이 모여 다른 봉사 동아리들 못지않게 노인복지관 등 정기적인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 봉사 말고도 일회성 봉사도 할 수 있기에 타 학과 학생들도 부담 없이 봉사를 할 수 있는 점! 어때요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회원 수 49명으로 회원 모집 방법은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IM 동아리장
김동하(컴퓨터시스템공학과)
☎010-4680-0144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심은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저희 창업 동아리 'NIM'이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걱정 없이 들어만 오세요~! 미래의 CEO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회원 수 18명으로 회원 모집 방법은 면접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SIN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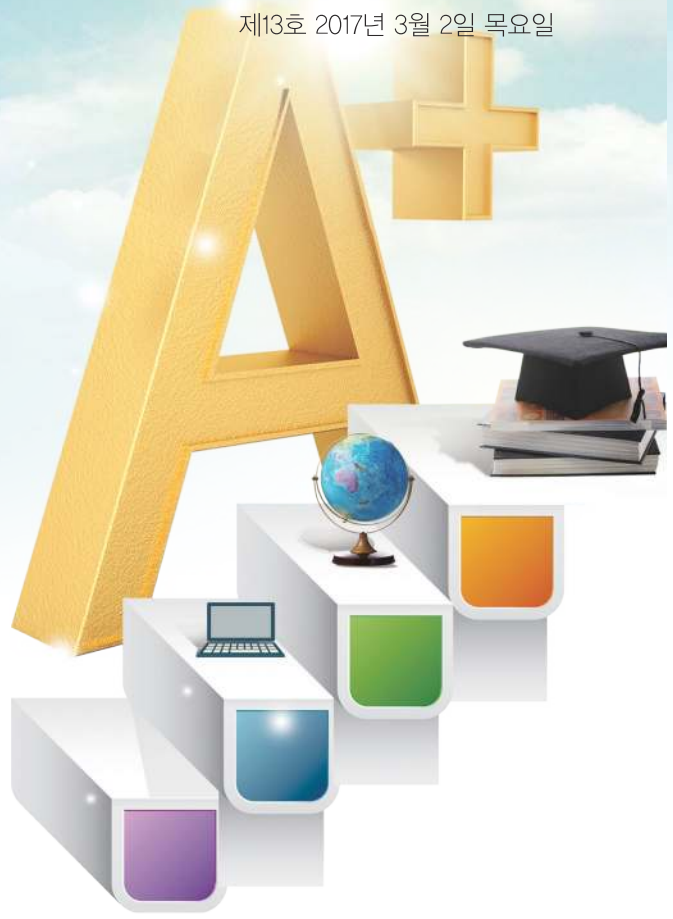
녹색 동아리장
문준호(신재생에너지학과)
☎010-4175-1505

학교의 환경은 우리들에게 맡겨라! 그린 캠퍼스 일등 공신!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 '녹색동아리' 그린카페, 잔실이 등 캠페인 활동으로 학생들에게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을 일깨워 주고 실천하도록 발 벗고 나서주는 학교 환경의 으뜸이들이죠. 정말 이런 동아리 어디 학교에서도 흔치 않아요~!
현재 회원 수 13명으로 회원 모집 방법은 면접 및 지인 추천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13호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장학금은 우등생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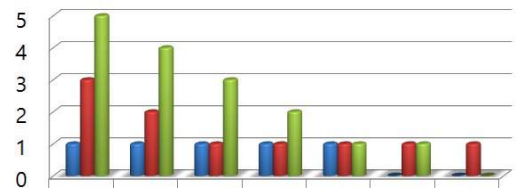
모두의 장학금♪ 모두 해~



우리학교 장학금 지급률은 충북 1위 전국 11위입니다. 1인당 장학금 지급률이 높은 만큼 장학금의 종류도 많습니다.
덕분에, 성적우수자만이 받는 소수의 특권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학교 장학금 제도의 장점입니다.
그러려면, 知彼知己(지피지기)百戰百勝(백전백승)! 나를 알고 장학금을 알아서, 새 학기 목표설정 해야겠죠?
이번 기사에서 장학금 종류를 함께 알아봐요!

1 성적장학금

많은 학생들이 받고 싶어 하는 장학금입니다. 성적우수 장학금은 학과 학년별 직전학기 재학인원에 따라 장학금 인원이 달라지며, 석차순위에 따라 전액장학금(A장학)과 반액장학금(B장학) 30%장학금(C장학)으로 지급됩니다. 선발조건으로는 15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하며, (4학년은 12학점 이상) 과락 없이 3.0/4.5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전액 장학금은 3.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0명 이상	60명 이하	50명 이하	40명 이하	30명 이하	20명 이하	10명 이하
A	1	1	1	1	1	0	0
B	3	2	1	1	1	1	1
C	5	4	3	2	1	1	0

2 공로장학금

학교발전 및 국가에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장 또는 학부장이 선발한 자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이 장학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책정 되는 형식이며, 선발요건은 2.75/4.5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직전학기 생활관 벌점이 없어야 합니다.

※공로가 인정되는 시기 1학기: 전년도 7~12월 2학기: 당해연도 1~6월

3 세계화장학금

중원은 세계로 세계는 대한민국으로! 글로벌 역량을 키우려는 학교 슬로건에 걸맞은 장학금입니다. 6개월 이내 성적표에 한하며, 영어 TOEIC 성적 850점 이상, 중국어 HSK 6급 이상, 일본어 JLPT N1 140점 이상을 받으면, 학업 보조비 70만 원이 주어지며, 재학 중 1회 지급이 됩니다.

4 근로장학금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내 각 부서에 배치되어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주당 40시간을 할 수 있으며, 선발요건은 성적 2.75 이상으로 직전 학기 생활관 벌점이 없어야 합니다.

5 해외교류 장학금

해외교류 장학금에는 교환학생과 해외교류 프로그램에 선발된 자로 나누어져 있으며, 프로그램 선발된 자는 별도 책정이 되며, 교환학생 장학금으로는 유럽 및 북미 호주 150만 원 기타지역은 130만 원으로 장학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선발 기준은 대외협력센터 교환학생 선발기준에 따르며,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다음 학기 성적 우수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6 생활관 장학금

생활관 지킴이와 도우미로 선발된 자와 자치 생활관 학생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으로 지킴이와 도우미는 별도로 책정되며, 생활관 선발 요건에 따릅니다. 생활관 학생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학생은 학기당 동 대표 100만 원이내, 층장 70만 원 이내로 주어지며, 선발요건 성적이 과락(F) 없이 2.25/4.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관 장학금은 누적벌점을 기준으로 벌점이 없어야 합니다.

7 멘토장학금

본교 튜터링 프로그램의 멘토로 선발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며, 학기당 학업 보조비 40만 원 이내로 지급됩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직적학기 성적 2.75/4.5이상 직전학기 생활관 벌점이 없어야 합니다.

8 언론장학생&홍보대사 장학금

학기당 등록금 50% 이내! 2017년부터 언론장학생과 홍보대사가 되어 활동하면 학기당 등록금 50% 이내가 주어집니다. 성적우수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선발요건으로는 성적 2.75/4.5 이상, 직전학기에 생활관 벌점이 없어야 합니다.

9 중원 리더 장학금

리더십도 인정받고 싶고, 장학금도 받고 싶다면 중원 리더 장학금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회(총학생회, 단과대학 학생회) 임원, 학부대표, 학과대표 생활관 학생운영위원회 임원이 될 경우 받는 장학금이며, 연마다 별도로 책정됩니다. 성적우수 장학금과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선발요건으로는 성적 2.25/4.5 이상 직전학기 생활관 벌점이 없어야 합니다.

知而不行 反不如不知(지이불행 반불여부지)라고 했습니다.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느니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관심 있는 장학금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www.jwu.ac.kr에 접속하여 '대학생활'란의 '장학안내'에서 장학금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생처(S201 TEL 043-830-8105)로 문의하면 됩니다.

최병근 기자 root@jwu.ac.kr

JR 선배님에게 물어봐!



봄은 푸르른 새싹들이 겨우내 잠자던 땅을 뚫고 드디어 올라오는 계절입니다. 눈 쌓였던 땅이 녹고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이제 봄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아직 추워서 새싹이 없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싱그러운 17학번 새싹들이 있는데! 하지만 새내기는 새내기의 고민들이 있는 법! JR기자단이 17학번 학우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 전격 투입! 익명으로 질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JR선배님에게 물어봐!' 90명의 학우 중 43명의 학우가 답변하여 주었습니다.

최재순 기자 cjsoon93@jwu.ac.kr



Q. 대학교 생활 중 가장 기대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1 **축제** 대학생활의 꽃인 축제입니다. 이 날은 신입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우들이 기다리는 날이지요!

2 **MT** 축제가 대학생활의 꽃이라면 MT는 신입생의 꽃! MT가서 신나게 즐기고 오길 바래요!

3 **학교생활** 지금껏 살던 동네에 똑같은 학교생활과는 다른, 대학교의 학교생활!

4 **캠퍼스 커플** 모든 대학 새내기들이 꿈꾸는 캠퍼스 커플 일명 CC!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벚꽃도 필텐데~ 함께 보러 가는 것도 좋겠네요!

Q. 반대로 걱정되는 것 있어요??



1 **선후배사이** 생각 외로 많은 학생들이 선배와의 관계에 걱정하고 있군요. 하지만 정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답니다! 중원대학교에는 정말 착한 학생들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서로를 존중한다면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어야 하겠지요?

2 **성적** 성적은.... 뭐.. 화이팅!

3 **혼밥** 또 생각 외로 많은 학생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 바로 학생식당에서 혼자 밥 먹기! 학생식당에서 혼자 밥 먹는 것이 어색하다고요? 부끄럽다고요? 걱정 마세요! 학생식당에는 혼자서 밥을 먹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식당에 혼자 앉아서 신나게 밥을 퍼 먹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Q. JR선배님!! 질문 있는데요~

학교가 외곽에 있던데 유흥은 어디서 즐기시나염?

학교에서 조금만 가면 유흥을 즐길 수 있지요! 수업이 모두 마치는 18:00, 읍내로 내려가는 18:30 버스에는 사람이 가득가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운 좋게 탑승하셨다면! 각자의 유흥을 즐기러 뿔뿔이 흩어지는 수많은 학우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식권 판매기가 있나요?

네! 식권 판매기는 M1중앙 복도 1층, 학생식당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학교 내에 시설은 좋은가요?

우리 학교에는 좋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수영장, 골프장, 헬스장 등등.. 하지만 좋은 시설들을 이용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겠지요!

기숙사 벌점 안받을 수 있는 팁좀 알려주세요.

어... 그냥 하지 말라고 정해져 있는 건 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없습니다♡

♥♥♥♥♥♥♥♥

새내기를 위한 필수템!!

김병국 기자 kbk0777@jwu.ac.kr



노트북

봉사활동, 대외활동, 각종 특강 청강, 아르바이트 등 대학생은 항상 바쁘고 활동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과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제출기한에 맞춘 완벽한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노트북 한 대쯤은 꼭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갓 20살이 된 학생에게 100만 원대의 노트북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서작성과 간단한 웹 검색용으로는 중/저가 노트북으로도 무리 없이 완벽한 과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공지톡, 사담톡 등 주머니 속 핸드폰은 항상 알람이 끝이지 않습니다. 여러 공지내용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다보면 어느새 배터리는 10%도 남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직 해야 할 일과 연락을 취할 사람이 많지만 콘센트에 묶여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가방 속 보조배터리는 그 빛을 발합니다! 바쁜 대학생활만큼 바빠지는 핸드폰을 위해 보조배터리 하나씩은 가방 속에 준비하는 것은 어떨까요?



텀블러

어려운 강의 내용, 발표 등으로 강의를 듣다보면 갈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음료수를 먹자니, 오늘따라 현금이 없네요. 정수기를 이용하자니 일회용 컵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텀블러 하나 있다면 항상 촉촉한 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발표하니 오늘따라 발표도 잘 되네요!



USB

영어, 자격증, 각종 동영상 자료 등 대학생이 되면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을 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메일 등으로 전달받기에는 용량문제로 실패할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대용량 USB 하나정도는 구비하고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프린트를 위해 자료를 USB에 넣어 다니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니 USB 하나정도는 꼭 구비하는 게 어떨까요?.



다색펜

누구나 잘 알겠지만, 강의 내용만 잘 필기해도 시험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매 강의마다 교수님은 여러 가지를 강조하시고 또 강조하십니다. 이럴 때마다 매번 색다른 펜을 찾아 필통을 뒤적거리다보면 내용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다색펜 하나 손에 쥐고 있다면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한 내용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취업 자소서 아직도 그렇게 쓰니?



상반기 취업 시즌이 다가온 만큼 취업을 하려면 반드시 써야 하는 자기소개서! 수백장을 쓰지만 취업은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항·목·별·쓰·는·방법!

아직도 성장과정을 있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NO~ 직무와 연관되게

저는 어렸을 때 엄격한 아버지와 자상한 어머니 밑에서 자라.... 이런 진부적인 글 절대 never 쓰지 마세요! 면접관이 가장 싫어하는 문장입니다. 회사가 원하는 건 지금 응시자의 가치관! 그 가치관이 형성되기 전까지 과정과 영향을 어떻게 주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내가 어떠한 모습인지, 직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쓴다면 100점 만점에 120점! 나의 가치관과 직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어필 할 수 있어 일석이조!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알고 있나요? 장점은 부합되게 단점은 극복으로 서술!

'SWOT분석'((강점(Strength)과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을 통해 자신의 성격의 장단점을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신이 지원하는 분야에서 요구되는 성격 또는 성향의 소유자임을 표현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성격이 지원하는 분야가 필요로 하는 성격이라면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단점은 솔직하게 인정 후 현재는 어떤 노력을 통해 그 단점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지 같이 쓰시면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당신의 실패를 우리가 사겠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실패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서는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에서 어떠한 경험을 얻었는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풀어서 쓴다면 기업에서는 당신의 그 실패한 경험을 얻으려고 당신에게 눈길을 더 줄지도 모릅니다. 팁! 실패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하나하나씩 기록하다 보면 중요한 자료도 될 수 있어 일거양득입니다!

지원동기 차별화된 역량! 장점 강조!

지원하는 기업과 직무분야에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 노력한 부분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직무 수행을 위한 어떤 경쟁력을 갖추었는지, 왜 지원 기업에 입사해야 하는지 자신이 어떤 차별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고민하고 장점을 찾아 강조하여야 합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같이 다 똑같은 장점보다는 자신만의 개성을 살린 장점으로 어필하세요!

입사 후 포부 구체적이며 당당하게!

미래를 계획하고 거기에 맞춰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달리 보입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자신의 계획에 맞게 5년, 10년 계획이 단계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하고, 목표/포부를 왜 갖게 됐는지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나 향후 계획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 파악하여 기업에 대한 관심도와 이해도를 어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병근 기자 root@jwu.ac.kr

---

• 리얼 취업 스토리

취업을 만만하게 보지마세요



생약자원개발학과
11학번 임태균

(주)크렌비스
3월 입사

Tip 1000대 대기업 VS 중소기업

한마디로, 하나의 공고를 내더라도 대기업은 수십 명을 뽑고, 중소기업은 1~2명을 뽑습니다. 즉, 실제 경쟁률로 따지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접고 들어가질 않길 바랍니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가져갑니다.

취업은 유비무환 입니다. 말 그대로 미리 준비해야 살아남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워요. 항상 다음 시험은, 과제는 미리미리 준비해야겠다. 그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야. 우리존재 파이팅! 이라는 다짐을 하지만, 현실은 잘 안 지켜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 안 하면 기업에서는 고졸, 초대졸 취준생들과 다를 것이 없어요. 자격증도 없고, 실무경험도 없고, 기껏 교육시키면 나갈 것 같은 눈 높은 대학생들이라는 인식만을 줄 뿐이죠. 근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뭘 해야 할지.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첫째. 자기가 희망하는 직업의 직무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신이 희망하는 직무가 어떤 것인지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약화학과라면, 막연하게 "난 제약 쪽으로 갈꺼야!" 라기 보다는 디테일하게, 제약 품질관리, 품질보증, 마케팅, 영업,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직무를 처음부터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Q. 그러면 준비하다가 마음이 바뀌면 어쩌려고 벌써 정하라는 건가요?

A. 그래서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졸업하고 나서 준비하다 마음이 바뀐다면, 공백 기간이 그만큼 늘어나겠죠? 오지선다형 문제에서 확실하게 아닌 건 지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둘째. 이력서를 작성해보세요.

이 말을 들으면 대게 "우선 스펙 좀 쌓고.. 쓸래"라는 반응을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 이력서를 쓰게 되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지금 부족한지 알 수 있고 거기에 맞게 자격증이나, 스펙을 만들어 가겠죠. 사람인, 인크루트, 잡코리아 어디든 좋습니다. 가입하고 이력서를 작성하세요.

Q. 사진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A. 포털에 '취업사진'을 검색해서 메이크업과 헤어, 사진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스튜디오를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 이력서 사진 바꾸고 서류합격률이 50%이상 높아졌어요.(눈물)

Q. 그럼 자소서는 어떻게 하나요?

A. 자소서는 두괄식으로, 직무와 연관해서 쓰는 것이 중요해요. 회사의 인재상, 직무별로 요구하는 능력을 적절히 녹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가 정해지면, 지원동기만 바꿔서 수 십 군데는 낼 수 있으니. 우선 직무를 정하고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셋째. 경력을 쌓으세요.

유병재가 SNL에서 말했죠. "아니 무슨 다 경력직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어디서 경력을 쌓나?" 실제로 구인공고에도 [신입/경력]이라 돼있는 경우, 최종면접에서 경력을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웃음). 어쩔 수 있나요? 여름방학, 2학기, 겨울방학에 직무와 관련된 기업에서 인턴을 하거나 공모전에서 스펙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인턴을 못하게 된다면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A. 국가공인자격증을 따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관리의 경우, 대놓고 공고에 품질경영산업기사, 품질경영기사를 구하는 기업도 있고, 화학분야는 화공기사, 화학분석기사 등을 우대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사람인이나 인크루트에 직무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관련기업에서 어떤 자격증을 우대하는지 어떤 능력의 인재를 원하는지 확인 가능하니 매일매일 확인하길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자면..

사람은 적응하는 동물입니다. 학교에 있으면 세상은 평화롭고, 졸업만 하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잖아요?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다른 지역의 취준생들은 학년에 상관없이 취업스터디, 스펙, 기업조사, 각종 수상경력까지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중한 시간이 다 지난 후에 학교를 탓하고 학우와 선배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는 우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글을 읽고 마음이 선다면 즉시, 이력서를 작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웃으면서 취업 턱을 내실 여러분께 이글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임태균 기자 tg0610@naver.com

나는 중원대생이다 – 유학생 1편 –

우리 중원대학교에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우들 중에서 약간은 특별한 우리 학교의 학우들을 소개합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서 우리 중원대학교로 유학 온 학우들을 알고 계신가요? 외국에서 전학 온 우리의 학우, 외국인 유학생들! 그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최재순 cjsoon93@jwu.ac.kr



한국학과
왕금국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유학 온 한국어학과 왕금국 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요?

저는 한국에 오기 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환상이 정말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재미있는 환상은 한국에 가면 걸어가면서도 그냥 연예인과 마주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연예인들이 다 길을 걸어 다니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니는 것 같아요.(웃음)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나 신기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이 IT강국이라더니 정말이에요. WIFI가 어디에서든 연결이 가능해요! 그리고 심지어 빠르고요. 그게 가장 신기했고, 또 가장 좋아요.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한국은 존댓말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존댓말이 없어요.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불편했어요.

학교에 와서 알게 된 친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국제통상학과에 전윤석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중국어를 아주 잘 해요. 제가 한국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말이 있으면 그 친구에게 중국어로 이야기하면 해석을 해 줘요. 제 친구 중에 이런 한국친구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중원대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우리 학교에 중국 유학생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유학생들이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서 기숙사에만 있어요. 그래서 한국문화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우리 학교 내의 유학생들이 한국의 문화를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JR학생기자에서 저희 유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학생들도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청할 일이 있다면 거리낌 없이 말씀하세요. 열심히 돕겠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호치민 공업대학교를 졸업하고 중원대학교로 유학 온 경영학과 14학번 레뚜언아잉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요?

한국은 교육이 훌륭하다고 들어와서 기대를 많이 하고 왔습니다.(웃음) 그리고 베트남에 한국회사가 많아요!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돌아가면 좋은 곳에 취직할 수 있어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나 신기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방학 때 한 달 정도 베트남에 돌아갔다가 왔는데 돌아올 때 눈이 내렸어요. 베트남에는 눈이 내리지 않는데 하늘에서 내리는 눈을 처음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점은 어떤 부분인가요?

기숙사에서 한국 학생들과 생활하다보니 문화 차이 같은 것이 좀 있죠!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사는데 좀 시끄럽기도 하고 청소를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뭐, 베트남에서 대학을 다닐 때에도 기숙사 생활을 하였지만 그 곳도 시끄러운 것은 마찬가지였지만요.(웃음) 그리고 한국 음식이 베트남과 달라서 입에 잘 맞지 않아요.

학교에 와서 알게 된 친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경영학과 14학번 친구들이 처음에는 많았었는데 하나 둘 씩 군대를 가버리더라고요. 이제는 기림이와 규태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빨리 졸업하고 한국에서 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베트남에 가서 아버지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경영학과
레뚜언아잉





보건행정학과
한혜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중국 길림성에서 유학을 온 한혜진입니다. 중원대학교 보건행정학과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한국에 대한 환상이 있었나요?

중국에서도 많은 한국 연예인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오면 연예인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한국에 온 지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제가 아는 연예인을 한 번도 보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이나 신기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은 점은 인터넷이 빠르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제한이고요! 처음 대학에 와서 학과 사람들과 함께 한 개강파티나 MT도 모두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나 문화차이로 인해서 불편한 점이 있었나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 것이었어요. 한국음식은 제 입맛에는 너무 달아요. 그리고 학교를 다니며 가장 놀란 것은 후배가 선배에게 너무나 깍듯하게 인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고요.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를 받을 때마다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학교에 와서 알게 된 친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요?

처음 학교에 왔을 때 너무나도 저를 잘 챙겨주셔서 항상 고마웠던 승우오빠, 그리고 첫 학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따뜻하게 알려 준 같은 과의 기훈이, 주희, 은아 모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항상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우리 학교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더 다양하고 많은 특강들과 한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원룸을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13호 2017년 3월 2일 목요일



중원 독슐랭 가이드

(독서 + 미슐랭)

겨울방학이 끝나고 드디어 다가 온 개강! 반가운 친구들과 인사 나누셨나요? 오늘 반가운 친구들과 한잔 하며 살이나 찌우러 가신다고요?
살 보다는 함께 지식을 찌우는 것은 어떠세요? 중원대학교 학술정보원의 맛있어 보이는 책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을 맛보려니 어떤 것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여기! 독서왕 세 분을 모셨습니다. 독서왕의 안내를 따라가 볼까요~



첫 번째 가이드!
한국학과 김민경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학과 3학년 재학 중인 김민경입니다.

처음 책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처음에는 주말에 혼자 기숙사에 남게 되었을 때, 책이라도 읽어 볼까하여 학교 도서관을 찾게 되었어요.

평소에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전공서적을 위주로 읽어요. 전공 공부는 깊이 있는 지식을 중요시 하는데 저는 그 깊이를 주로 독서를 통해서 채우고 있어요. 전공이 한국학과이다 보니 한국어학과 한국역사, 문화 관련한 책을 많이 찾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언어학·역사 관련해서 많이 읽었어요. 특히 저번 학기는 역사 관련한 책을 많이 빌려봤어요. 읽다보니 점점 다른 내용이 궁금해지고 추가적인 내용이 알고 싶어 다른 책들도 함께 빌려 공부를 하다보니까 어느새 다독자로 뽑혀있더라고요.

우리 학교 도서관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학술정보원 원장님이 시험기간에 간식 주시는 것이요! 시험기간에 잠 깨려고 먹고, 배고파서 먹고, 간식 참 많이 먹는데 원장님이 주시니까 감사하죠. 시험기간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고 있습니다!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나요?

'곁에 두고 읽는 서양 철학사'★★★라는 책인데, 많은 철학자들의 생각을 쉽게 설명한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생각이나 이념들이 저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 졌으니 알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정말 잘 이용하고 있지만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가 졸업하기 전에 실현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언젠가는 우리 학교도 독립적으로 도서관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책도 더 다양했으면 좋겠고 열람실도 요구조건에 맞게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가이드!
생약자원개발학과 김범수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4살이며 중원대학교 생약자원개발학과 12학번, 3학년에 재학하고 있으며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김범수입니다.

처음 책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책은 최고의 간접경험서, 지식의 보고 등 많은 수식이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은 저는 자연스럽게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직접 듣지 않고도 배울 수 있고 많은 생각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책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저는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자기계발에 필요한 대학생 추천 도서와 베스트셀러를 찾아서 읽곤 합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장점은 '주기적인 신간도서 입고'입니다. 읽고 싶은 책을 중원대학교 도서관에서 검색을 하면 출간한지 얼마 되지 않은 책도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은 '도서관의 위치'입니다. 방학 중에 타 대학의 도서관을 가보았는데 도서관과 캠퍼스와의 거리가 꽤 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의 도서관은 캠퍼스 내에 있어 학생들이 쉽게 도서관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 이 좋습니다.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나요?

저는 '하버드 새벽 4시 반'★★★ 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그 책 내용 중에 '오늘 당신이 쏟은 노력과 내일의 결실은 정비례한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자신이 노력만큼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 할 때 그것이 정말 노력인지 아니면 자기스스로의 위로를 위한 변명인지 생각 해 볼 수 있는 좋은 책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책을 통해 넓은 지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가이드!
뷰티헬스학과 민한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의료보건학부 뷰티헬스학과 15학번 민한솔입니다.

처음 책을 접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어릴 때는 사실 책을 잘 읽지 않았습니다. 대학교에 다니고서부터 저에게는 많은 고민들이 생겼는데 잠시 쉬기 위해 들어간 열람실에서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라는 책을 읽게 되었고, 그 책을 읽은 것이 저에게는 처음 책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시나요?

다양한 종류의 자기계발서를 읽습니다.

학우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나요?

제가 처음 책을 접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책인 박광수의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책을 전혀 읽지 않던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끝까지 읽었을 정도로 어렵지 않고, 고민이 많을 때 해결책을 독자와 함께 고민해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면 가족이나 친구, 주위의 사람들을 찾곤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사람이 아닌 책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원대학교 학술정보원 어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이 어플만 있다면 조그마한 스마트폰 하나로 학술정보원의 책은 모두 내 손바닥 안에! 이상으로 독서왕 세 분의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제 독서에 흥미가 좀 생기시나요? 이번 주말은 학술정보원에서 책을 천천히 음미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최재순 기자 cjsoon93@jwu.ac.kr



봄바람 따라 통학버스 나들이

신입생, 복학생, 취준생 누구나 할 것 없이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마음이 싱숭생숭, 심장이 두근두근! 어디론간 떠나고 싶지만 알량한 학생 신분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 통학버스를 활용한 알찬 하루를 보낼 수 있는 나들이 장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빨리 손잡고 가봐요!

김병국 기자 kbk0777@jwu.ac.kr



증평 자전거 공원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

증평 - 아기자기 이상한 나라의 공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을 갔다면 예쁜 사진 정도는 간직해야 한다! 이렇게 찍어도 예쁘고 저렇게 찍어도 이곳은 날 너무 예쁘게 만든다. 아기자기한 건물들은 실제 증평의 건물들을 축소해 재현해 놓았기에 정신없이 예쁨을 뽐내다보면 어느새 거인이 된 듯한 기분에 모든 고민들이 작게 보인다.

※증평 통학버스 승차 → 증평군청 하차 → 111번(한국교통대 방면)승차 → 남하1구정류장 하차 → 자전거 공원 어린이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장 도착

◆ 증평자전거공원 주소– 충북 증평군 증평읍 남하용강로 16

증평 - 맛따라 맛따라 !

데이트에 맛 집 탐방이 빠질 수 있나요? 입도 즐겁게! 한참을 놀다보면 배고픔에 이성을 잃은 경우가 한 번씩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증평은 배부름이 끊이지 않는 도시다. 어느 음식점을 들어가든 맛있는 음식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라는 말을 되뇌며 숟가락을 놓지 못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식전문점인 '하오츠'(043-838-1819)와 한식전문점인 '꿀밥'(043-838-0802)은 현지 자취생들의 소문이 자자한 곳이다.







무심천



청주 - 흐드러지게 핀 벗꽃 길

따뜻한 바람에 마음이 싱숭생숭할 때 눈앞에 '벚꽃'은 오랜 시간 죽어있던 연애세포를 깨운다. 사실 벚꽃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표현할 가장 좋은 핑계거리이다. 벚꽃 구경 핑계로 나들이를 제안해 같이 벚꽃 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벚꽃보다 더 예쁜 사랑이 필 수도 있다. 봄날 데이트의 필수, 꽃놀이! 올해는 사람 북적거리는 여의도보다 무심천으로 가는 것이 어떠세요?

벽화 속으로 풍덩

독특한 그림들과 기발한 아이디어로 동네 전체가 물들어있다. 특별한 사진을 찍고 싶거나 독특한 사진들을 원하는 '나'에게는 딱 맞는 장소다! 벽화를 보며 걷다보면 '제빵왕 김탁구'를 비롯한 여러 드라마, 영화 촬영지를 함께 구경할 수 있다.





수암골



상당구 시내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봄바람은 부는데 옷장 안의 옷들은 아직 겨울이다. 집에 가서 옷을 가져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인터넷 주문을 하자니 겨울잠을 보낸 몸에 어떤 사이즈가 맞을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 이럴 땐 입어보고 사는게 딱이다!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고! 갑갑함이 좀 풀리는 기분이 든다.

매일매일 똑같은 데이트에 질리셨나요? '우리 학교에서 나갈 곳이 어디 있어..' 라구요? 그럼 이번 주 색다른 데이트는 어떠신가요? 당신의 센스에 여자친구가 업어 줄 수도 있습니다!

모델 협조 : 정호룡, 박수현 기자

신입생을 위한 괴산읍내지도

한 눈에 보는 괴산의 Hot place



신입생 여러분 중원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맑고 깨끗한 괴산에 오신 소감은 어떠신지요? 아직 잘 모르겠다구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괴산읍내 지도입니다. 괴산읍내 나가기 전에 위치를 알고 가면 편하겠죠? 맛집을 모두 담지 못했지만 중원대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발굴하시리라 믿고 괴산읍내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앤비 & 앤츠

새내기라면 알아야 할 개강파티&종강파티 장소 비앤비와 앤츠 말고도 많은 장소들이 있지만 주로 비앤비와 앤츠에서 많이 합니다. 개강파티 가기전에 위치 확인하고 가세요.

☎ 043-832-6789 비앤비
☎ 043-834-0834 앤츠

괴산 장날

괴산 장날은 3일,8일 장으로 한번 쯤 나가 보는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장날 치킨과 족발도 추천 반찬이 필요하다면 장날에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날씨좋은날 친구들과 장날의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다이소

입사할 때 필요한 생필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두고 오셨거나 필요한 물건이 있다면 다이소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룸메들과 손 꼭 잡고 같이 장 보러 가보세요.

[015E]어플

[015E] 컴퓨터 시스템 공학과 학생들이 만든 어플로 공지사항 교내 전화번호 배달 음식등 학교생활에 도움이 될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수현 기자 qkrtngus2015@jwu.ac.kr